

VISION ROAD

2022 Vol.11

전 환 점



SNU
MEDICINE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화하는 전환의 시대,



서울의대는 어떤 새로운 길을 향해 가고 있을까.

Contents

SEE

- 08 **TALK** 우리에게 전환점이란?
- 16 **MAPPING** 키워드로 보는 전환점의 오늘과 내일
- 18 **TURNING POINT** 내 인생에 전환점이 되었던 것들
- 26 **INSIGHT** 달라진 시대, 새로운 표준에 대한 마음 챙김
- 32 **IMAGINE** 디지털 휴먼과 함께하는 불로장생의 시대로
- 38 **TOON** 전환이 별건가요?

MOVE

- 42 **INTERVIEW 1** “서울의대답게, 대학이 중심으로, 모두 함께 멀리”
- 48 **VISION** 멈추지 않는 발걸음,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 의과대학으로
- 56 **INTERVIEW 2** 박철기 교수가 말하는 미래 의학과 메타버스
- 62 **INTERVIEW 3** 일관적인 삶의 태도가 만드는 소소한 대전환
- 68 **HERITAGE** 서울의대 역사의 터닝 포인트 ‘미네소타 프로젝트’

- 76 **SNU+ NEWS**
- 82 **DONATION**

08
TALK



우리에게 전환점이란?
서울의대 학생들

42
INTERVIEW 1



**“서울의대답게, 대학이 중심으로,
모두 함께 멀리”**
김정은 학장

48
VISION



**멈추지 않는 발걸음,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 의과대학으로**
강대희 교수, 신현우 교수, 손지웅 사장, 김기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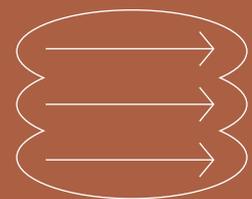
56
INTERVIEW 2



**박철기 교수가 말하는
미래 의학과 메타버스**
박철기 교수

1 SEE

지금 보고, 사람을 알고, 삶을 찾는 일





그 지점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우 리 에 게



의학과
3학년
이호연

의학과
1학년
이상철

의학과
2학년
손주희

write. 편집실 photo. 안용길

시대의 전환점에서 서울의대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개인적이고 소소한 일상 이야기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의대의 변화, 그리고 의대에 바라는 점까지 서울의대인의 다양한 생각을 엿본다.

전 환 점 이 란 ?



의예과
2학년
최선호

의학과
2학년
이강준

의예과
1학년
장원영

나의
전환점은
'서울의대 입학'



의예과 1학년

장원영

내가 생각하는
전환점이란
'동기를 부여하는 데
핵심적인 개념'

66

선배님과 교수님들께서 '의예과 생활이 의대생에게 유익하게 여유로운 시기이니 많은 활동들을 해보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문, 사회, 예술, 과학 등 여러 분야의 교양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양 강의와 전공 강의를 들으면서 학생들이 더 넓게 사고할 수 있도록 학과에서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의학 연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익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전공 강의에서 다루고 있어, 서울의대가 임상으로서의 의사뿐만 아니라 기초연구에 집중하는 의학자를 양성해 우리나라의 의학 연구 저변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100%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업 외에도 매주 3회씩 운동을 하고 동기들과 서울 여러 곳, 해외를 여행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책상 앞에만 앉아있어 약해진 체력을 단련하고 나쁜 생활 습관으로 망가진 체형을 교정하고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학습량이 많아지는 본과 생활을 할 때, 체력이 문제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여름 방학에는 동기들과 싱가포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친구들과의 첫 해외여행이라 설렘과, 그만큼 즐거웠습니다. 남은 의예과 시기 동안 혼자 여행도 해보고 동기들, 친구들과도 많이 다녀보면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처력과 적응력도 높이고 싶습니다. 99

66 지금은 대부분의 수업이 대면으로 전환됐지만, 이전 때까지는 반 정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이뤄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비대면 수업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면 수업보다 집중하기 어렵고 학생들 간의 교류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과 수업은 아무래도 지식 전달의 목적이 강하니 다르겠지만, 예과 수업은 학생들 간 교류가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학 생활’이지만 저의 전환점은 역시 ‘대학 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선택의 여지가 크게 없이 정해진 길을 따라간다면, 대학교에서는 수업도, 활동도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으로 이뤄지잖아요. 저는 정해진 것 없는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많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또 무엇보다 뛰어난 친구들을 만나고, 생각의 폭이 넓어진 것 같아 즐거운 마음으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예과 생활을 즐겁게 보내고, 이후 본과에 진입해서 제가 관심 있고 흥미 있어 할 분과를 찾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정신과’이지만, 제대로 공부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를 정하는 것은 스스로 틀에 가두는 것이라고 생각해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보고 저에게 맞는 길을 찾고 싶습니다. 99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의사 역할
변화에 따른
의대 교육이
필요하다

기분 전환
집근처 천변
산책이나 헬스

남은
예과 생활을
무엇을 하면서
즐거야 할까

이태석 신부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의사를 꿈꾸기 시작





의학과 1학년
이상철

기분 전환
무력하거나
뒤쳐졌다고 느껴질 때
러닝을 하면서
자존감 UP

고민

공부를 할수록 구부정해지는 목,
낮아지는 시력 등 건강 문제

예과로 돌아간다면
다양한 경험과
제2외국어 공부를 위한 해외여행

66

본과생으로서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적응을 잘해서 취미 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동창들을 보면 벌써 논문을 완성했거나 회사에서 인턴을 하는 등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본과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취미로 작사와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을 표출할 창구가 필요했거든요. 더불어 그 순간을 온전히 기억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런 생각과 감정을 품고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씩 들여다볼 수 있게 말이죠. 이런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했습니다. 시의 형태로도, 그림의 형태로도 가능하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멜로디와 가사의 형태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떠오르는 악상도 많고 준비하는 공모전도 있어서 특히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의 행보도 중요하지만, 저는 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음악, 그림과 같은 예술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힘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멋진 건물이나 좋은 공간 안에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병원을 구성할 수는 없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좋은 병원에 대한 고찰이죠. 언젠가 그런 것들은 실현할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99

“나는 동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끈기가 남아있는
사람이구나!”

66

최근 크게 두 가지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춤 동아리 대표를 맡고 있는데 학우들 및 부원들과 마찰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체계를 유지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과 소통을 중시하는 것 중에서 리더로서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두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래의 진로에 대한 것입니다. 고등학생 때는 흉부외과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는데 의대에 들어와 공부할수록 점점 내가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 어떤 과에 가고 싶은지가 더 불투명해지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내년에 병원 실습을 시작할 텐데, 그 과정에서 하고 싶은 과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의대 춤 동아리 대표,
올해 11월
정기공연 준비 중

취미는 춤,
그래서 최근 관심사는
'스트리트 맨 파이터'



의학과 2학년

이강준

서울의대는 캠퍼스가 다른 곳에 있어 본과 때부터 다른 과 사람들과의 교류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본과에 와서도 타과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예과 2학년 때 했던 여러 경험 덕분에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고, 다양한 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과 노력이 지금까지 이어져 학생회장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과 이후 본과를 겪으면서 학업적인 부담으로 인해 타과생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고 의과대학 안에 갇혀 사는 경우가 많아 아쉽습니다. 밀도 높은 4년간의 본과 공부량을 6년으로 퍼뜨려서 공부 밀도를 낮추고, 학생들이 꾸준히 외부 활동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장려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99

얼마 전까지
시험의 연속,
지금은 '의학연구2' 수업 중

본과 3학년부터 시작하는
병원 실습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 중

66

저에게 전환점이란 '내가 보고 있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야의 확장을 ICM 임상 실습 시간에 많이 경험했습니다. 다양한 모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제 사고의 편협함을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병, 그중에서도 중하고 치명적인 병을 매일 배우는 저희에게는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낮은 병기의 치료하기 쉬운 암이라도 일반 환자에게는 큰 공포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언어는 환자에게 내가 의도한 바와 전혀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의사인 우리는 의학적 문제에만 집중하지만, 환자에게는 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항상 최우선은 아닐 수 있다는 당연하면서도 잊기 쉬운 사실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깨달음 하나하나가 제게는 더 좋은 의사,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전환점인 것 같습니다.

병뿐만 아니라 환자를 아는 의사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병을 아는 것은 의과대학 교육 과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지만, 환자를 아는 것은 학교에만 의존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안다는 것은 한 사람의 살아온 삶과 살아갈 삶을 상상하는 것, 그 사람의 처한 상황과 가치관, 인지 체계에 따라 병과 치료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아는 의사가 되기 위하여, 의학 공부 외에도 사람에 대한 공부, 사회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고 싶습니다. 99

시험 후 루틴
책 한 권 읽기
'시험과 나 사이에
책 한 권 만큼의
거리'가 생긴 것 같아
기분 전환

기분 전환
운동으로
땀을 흘리고 나면
개운



의학과 2학년
손주희



의학과 3학년

이호연

본과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공부에 매몰되지 말고
동아리나 다른 활동 등
나만의 여유 찾기

취미는 테니스
'테니스를 치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가장 중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마음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것

66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플랫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등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새로운 시도나 도전, 그리고 혁신적인 논의들이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학생들 간의 교류가 적어지면서 문화의 단절이 발생했습니다. 문화가 단절되면서 서로의 거리가 멀어졌고, 서로를 내면적으로 이어주던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측면에서 우리가 좋은 점은 다시 계승시키고,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면 개선하기 위해 나아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또 코로나19 시절 많은 동아리들이 재정의 지원이나 공간적인 문제들 그리고 후속 세대의 단절 등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가장 잘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의학 교육일 것입니다. 의학 교육 과정이 지식의 습득을 넘어 지식의 생산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두가 잘해도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을 받아야 하는 구조 속에서 경쟁을 통해 의학 교육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어느 수준까지 효율적으로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 의학 교육의 목표도 학생들 개개인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핵심 가치들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교육적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9

키워드로 보는 전환점의 오늘과 내일

‘전환점’으로 연상되는 다양한 키워드를 통해 시대의 흐름과 생각을 엿본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과 살아갈 내일에는 어떤 전환점이 있을까.

#입학 #졸업 #군대 #결혼 #출산
#한 마디 말 #한 권의 책 #친구 #부모님 #선생님
우리는 살아가며 다양한 전환점을 맞이한다.
2022년과 2023년 당신의 전환점은 무엇이나요?

인생 ★

코로나19

#팬데믹 #엔데믹 #트윈데믹 #일상회복
#비대면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했다. 일상생활부터
사회 전반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환점이 된 주요 키워드.

러스틱 라이프 ★

#캠핑 #시골 생활 #산촌 생활
버거운 일상에 지친 도시인들이 날것의 자연과
시골 고유의 매력에 빠졌다. 나아가 2023년
‘그레이트 아웃도어’라는 키워드로 야외 활동의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대

#MZ세대 #알파세대 #엑스틴 #인덱스 관계
전환의 시대의 핫한 키워드였던 MZ세대. 2023년에는
‘알파세대’가 온다. 순수한 ‘디지털 네이티브’
즉, ‘디지털 원주민’이 탄생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개인화

#퍼스널 브랜딩 #나노사회 #자아 찾기
급격한 산업화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한국사회의 특징. 2022년에는 극소 단위로
분화되었다는 의미의 ‘나노사회’라는
키워드까지 등장했다.

Turning
2022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클라우드 #확장현실 #사물인터넷

디지털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전통적인 사업군의 디지털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확장현실(XR) 및 IoT(사물인터넷) 등의 핵심 기술과 함께, 디지털 혁신을 통해 기존의 정보통신 기술을 변화시키고 있다.

기후 위기

지속 가능한 발전 #ESG #탄소 중립
#저탄소정책

코로나19로 급격한 환경 변화와 기후 변화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심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 다가오는 미래에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머너러시

#주식 #가상화폐 #비트코인 #파이어족
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주식, 가상화폐 등 다양한 투자가 인기를 끌고, N잡으로 파이어족을 꿈꾸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오피스 빅뱅

#재택근무 #일터 #꼰대 #직장 문화 #위케이션
#조용한 퇴사 #대퇴직 러시

직장 문화가 바뀌고 있다. 전통적인 조직의 관리와 복지의 개념부터 일터라는 개념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에는 재택근무, 대퇴직 러시, 조용한 퇴사, 위케이션 등 다양한 직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공간력

#새로운 공간 #선택과 집중 #트렌드 코리아 2023

엔데믹을 앞두고 공간이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택하는 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키워드. 최근까지 화두였던 ‘메타버스’나 온라인 세상을 벗어나 ‘진짜 경험’이 있는 곳, 코로나19가 끝났다고 이전의 공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을 찾을 전망이다. 🏠

Point

2023



배상수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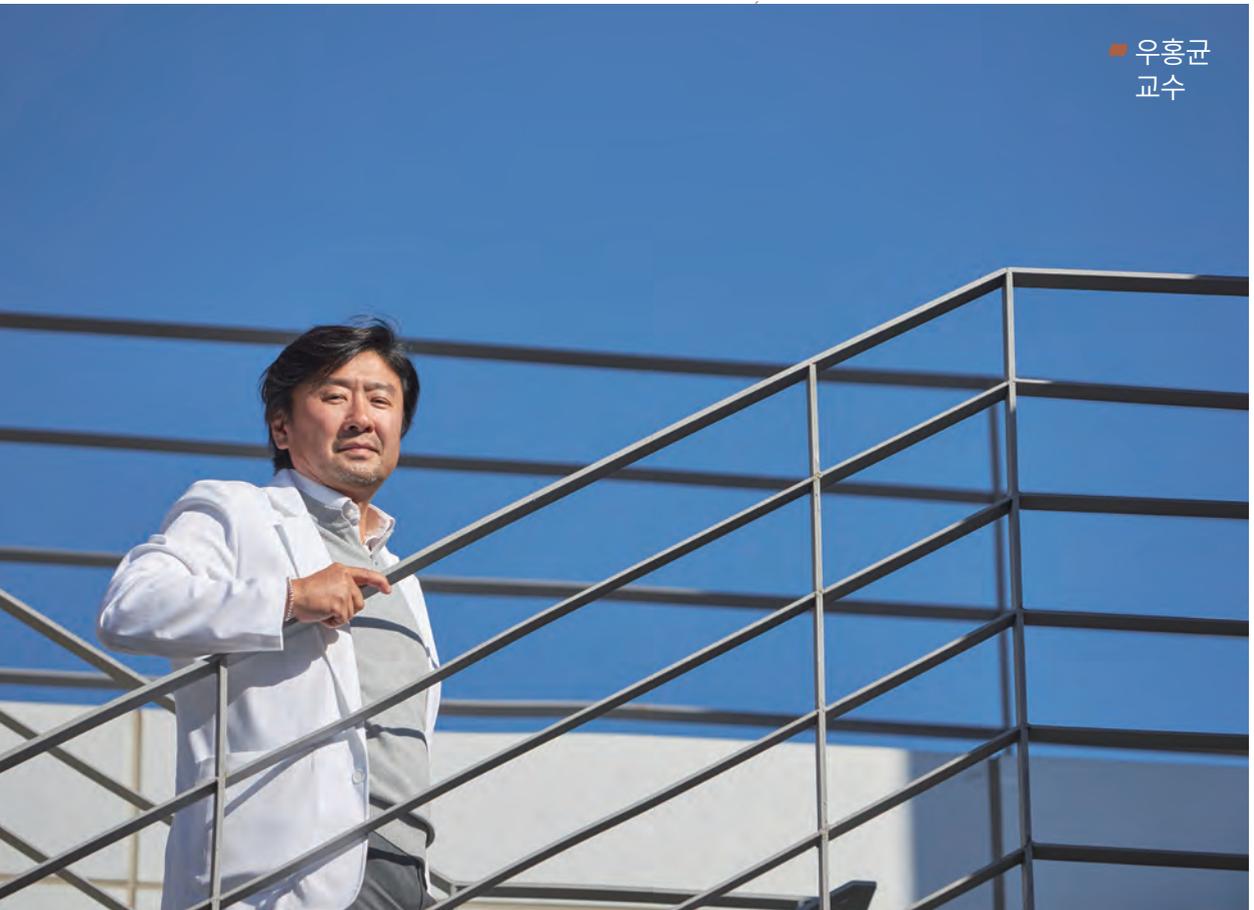


채종희
교수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번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크고 작은 인생의 변화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까.

우흥균
교수



인생을 걸 만큼 흥미로운 분야와의 만남

서울의대 생화학교실의 배상수 교수는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유전자 교정을 연구하고 있다. 그에게는 흥미로운 이력이 있는데, 바로 물리학과 출신의 기초의학 교수라는 것이다. 그가 생화학 분야로 뛰어든 이유 중 하나는 1962년 노벨상을 받은 ‘생물학자 왓슨과 물리학자 크릭의 공동 연구’였다.

“물리학자가 생물학에 크게 기여를 했다는 것이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물리학을 전공했지만 언젠가는 의생명과학에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선택한 것이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유전자 교정 분야였습니다.” 최근 유전자 교정 분야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기존의 기술의 문제점을 찾아, 그 문제점을 극복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등 연구가 매우 활발하다. 하지만 유전자 교정은 2010년대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분야였다. 만약 부모에게 질병이 있는 DNA가 있다면 자식에게도 전해지고, 똑같은 질병을 앓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제는 그 DNA를 고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과학자가 꿈이었으니 ‘인생을 걸 만큼 흥미로운 주제를 만난 것’이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물리 수업이 너무 재미있어서 물리학을 선택했는데, 공부와 연구는 조금 다른 영역인 것 같습니다. 연구는 내가 궁금한 것을 풀어내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유전자 가위를 접했을 때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생물학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유전자 가위’라는 흥미로운 분야와의 만남이 그를 자연스럽게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한 셈이다. 더불어 물리학을 공부해서 근본적인 것과 작동 원리 등에 관심이 많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른데,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묻어 나와 지금 연구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한다.

때로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을 앞에 두고, 새로운 길에 대한 위험이나 부담감 때문에 망설이곤 한다. 배상수 교수도 처음에는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 ‘남들은 10년을 공부해서 가는 분야인데, 이제 시작해서 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가위’라는 분야가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성공과 실패’를 따지지 않고 도전했고, 그에게 후회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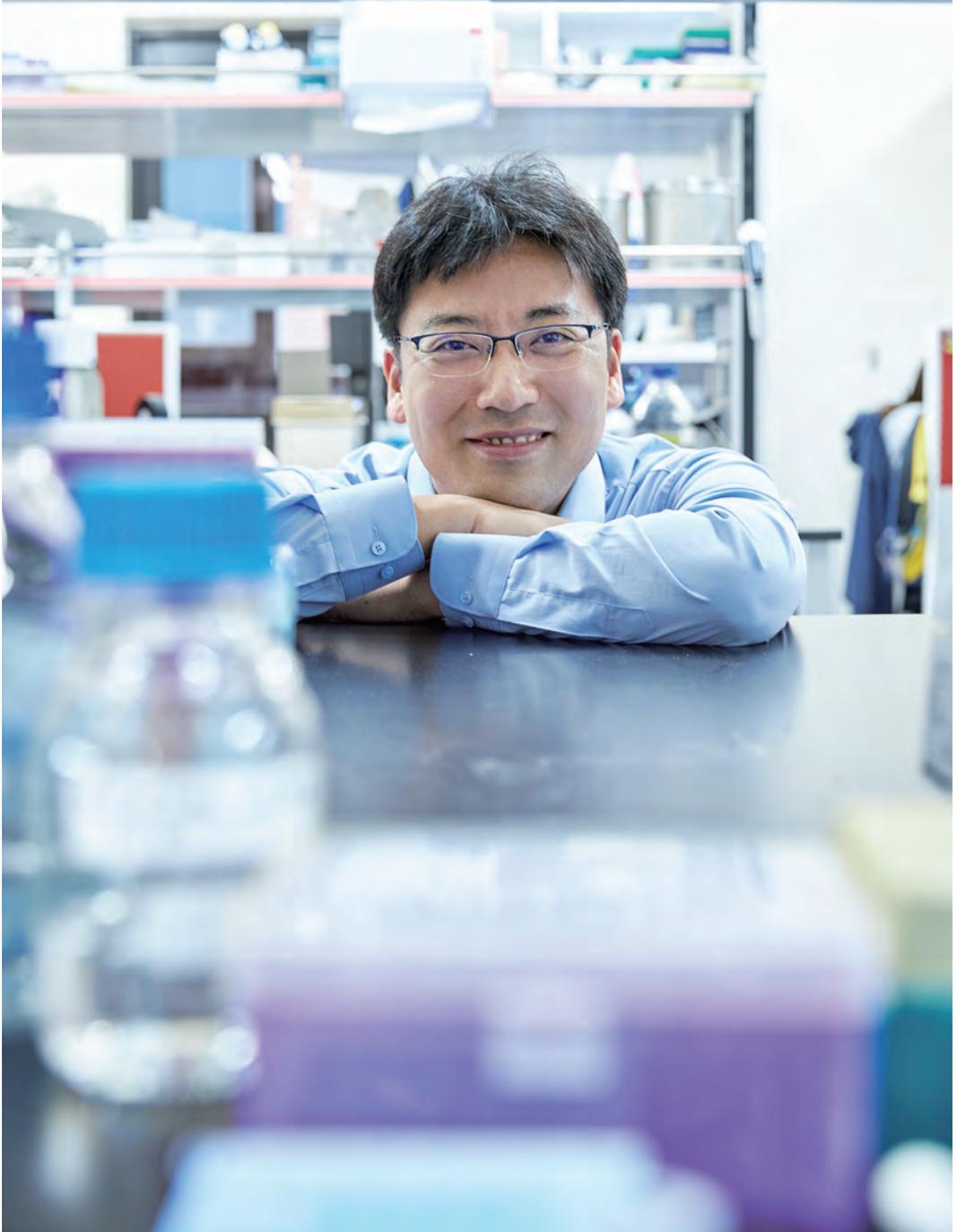
“대단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들 한 번씩은 들었을 것 같은데, 미래에 대한 낙천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잘 되겠지, 그렇다면 재미있는 걸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배상수 교수는 때로는 미래에 대한 ‘근자감’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앞뒤 재지 않고 과감하게 나아가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전환점 앞에서 고민하고 있을 의대생들에게 조금 더 창의적인 사람, 틀을 깨는 사람이 되라 조언한다. 의대생은 대부분 정해진 길을 걷는다. 하지만 새로운 치료법을 만드는 사람, 나아가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영역까지 가야 한다고 말한다.

“안전하고 획기적인, 새로운 유전자 교정 기술을 개발하는 것, 그 기술을 통해 환자를 근원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서울의대에서 의과학자 또는 의과학자를 양성하고 싶습니다.”

물론 내가 흥미로워 선택한 연구에도 힘든 순간은 있다.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유전자 교정 분야는 경쟁적으로 논문이 쏟아져 나오는, 소위 말하는 ‘핫한’ 분야이다. 연구 결과를 목전에 두고도 남들보다 한발 늦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순간이 오면 그는 잠시 연구 스위치를 내린다. 유튜브를 보거나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머릿속 ‘연구’에서 완전히 벗어나 시간을 보낸다.

66 과학자가 꿈이었으니까, 인생을 걸 만큼
흥미로운 주제를 만난 것이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99





VISION

선도적 의과대학과
실천적 지성인 양성

MISSION

원칙을 존중하는 따듯한 리더 양성
창의적 연구로 의과학 선도
참여와 봉사를 통해 건강사회 구현

우홍균 교수 ■ 방사선종양학교실

인생이라는 흐름 속의 한 계단

서울의대 방사선종양학교실의 우홍균 교수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대한방사선종양학회장으로 지난 10월 학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방사선치료에 필요한 액세서리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파프리카랩의 대표로 방사선 측정기 등을 만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꿈의 암 치료기’라 불릴 만큼 많은 사람의 기대를 받고 있는 의료용 중입자가속기구축사업의 단장을 맡아 사업을 이끌고 있다. 그런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인생이라는 흐름 속에 있는 하나의 계단이다.

“전환점이라고 해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재해 있던 것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같은 거죠.”

우홍균 교수가 중학교에 다니던 때는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를 떠올리면 상상하기 쉽다. 그 시절 우리나라는 가난했고, 학교는 억압적이고 폭력적이었다. 그래서 일본으로 이사를 하며 느낀 ‘자유’가 더 크게 느껴졌을 지도 모르겠다. 일본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던 그는 공부 대신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도쿄 구석구석을 누볐고, 그 자유로움이 그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었다. 또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이방인이 아닌 존재로 타지에서 인정받으며, 자존감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모교인 경기고등학교에 입학해 자부심을 알아갔고, 서울의대에 입학 후 그는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인 아내를 만났다. 연애하는 2년 동안 3일을 빼고 만났을 정도로 열렬히 사랑했던 아내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 어쩌면 그의 기본 전환 방법 중 하나가 가족과의 대화인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66

전환점이라고 해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재해 있던 것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⁹⁹

최선을 다해 꾸준히 삶을 살아가자

“서울의대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꾸준히 열심히 살아야 올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공부도 벼락치기를 할 수 있지만, 기본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홍균 교수는 전환점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꾸준히 최선을 다하는 삶과 함께 순응하는 태도를 이야기했다. 일어나는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노력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말이다. 또한 전환점에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고 한다. 전환점이라는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두고 그것만 바라보면 오히려 그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순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금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범사에 최선을 다하고 다가오는 순간들의 의미를 발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아온 시간을 돌아봤을 때, 삶에 무의미한 시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꿈은 정년 후 아내와 함께 함박스테이크와 양송이 수프를 파는 작은 식당을 여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 생긴 꿈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파프리카랩을 더욱 크게 키워나가는 것. ‘For the peace of all mankind’라는 회사의 모토처럼 방사선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주는 것이다. 앞으로 그가 내디딜 또 다른 한 계단이 기대된다.

우연한 기회가 열어준 새로운 세계

서울의대 소아과학교실 채종희 교수는 희귀·희소 질환을 다루고 있다. 최근에는 초고가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인 ‘졸겐스마’를 국내에 도입해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등 좋은 소식을 알렸다. 그녀의 첫 환자도 ‘척수성근위축증’이었다. 30년 전에는 진단을 위해 어려운 조직검사를 해야 했고, 조직검사를 위해 수면 마취를 했던 아이는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때의 아픔이 ‘어려운 병을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바뀌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일본에서 연수할 기회를 가질 때 깨달았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새로운 세계를 만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들은 적도 없는 수많은 새로운 질환을 연구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분야인데도 연구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때의 선진의학인 셈이죠.”

일본에서의 시간이 쉬웠던 것은 아니었다. 그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두려웠지만 동료 연구원의 도움과 일본 스승님의 가르침이 큰 힘이 되어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환자를 돌보며 연구를 지속했다.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스승님과 많은 동료, 후배들이 그녀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하고 논문을 썼다. 하지만 치료제 없이 나빠져 가는 환자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음에 좌절했다. 우울감이 밀려왔다.

“일 년에 한두 번씩 오던 10대의 근육병을 앓은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만 오셨어요.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시간이 좀 지나서 찾아왔다면서 ‘다른 병원에서는 포기했는데, 선생님이 만날 때마다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해준 덕분에 내가 아들을 위해 최고의 병원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녀는 환자와 부모님을 대하며 절망스럽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분들도 나중에 그렇게 생각해주실 거라며 힘을 얻는다. 그래서 늘 활기차게 환자를 대하고 연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스스로에게 관대한 사람이 되자

채종희 교수의 인생 모토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이다. 변화가 생기거나 새로운 일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순간이 곧 그녀에게는 전환점이 된다. 그리고 너무 멀리 말고 하루별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의 90%를 해내면 ‘오늘 내가 정말 잘했구나’ 하는 칭찬을 잊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관대해야 해요. 흔히 나에게 관대하면 남에게 관대하지 못 하다고 하는데, 저는 스스로에게 관대한 사람이 남에게도 관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늘 ‘괜찮다,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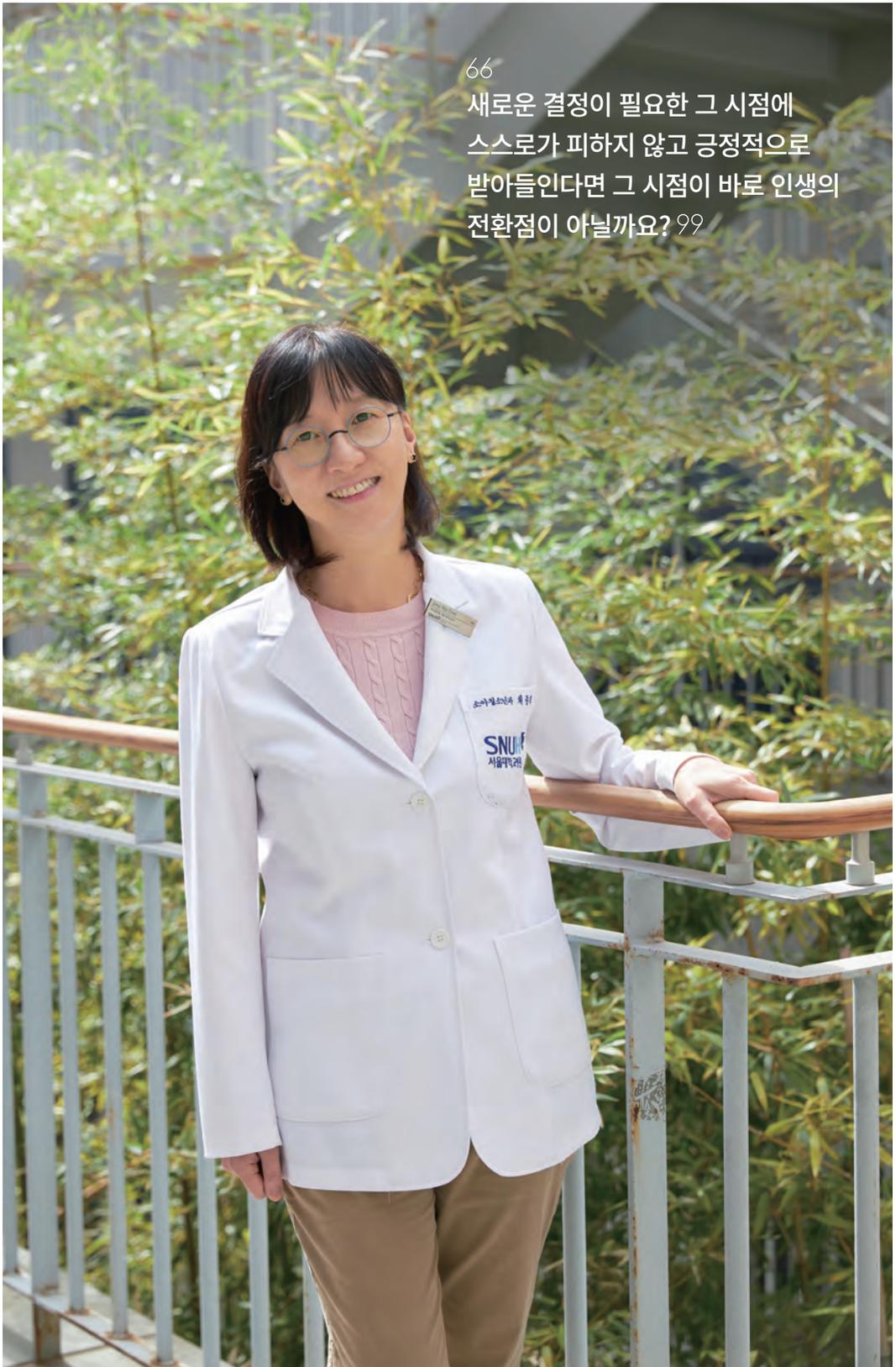
평소에 호기심이 많은 그녀는 우울해질 틈이 없다. 금세 다른 것이 궁금해져 관심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그녀는 먹는 것을 좋아하고 요리도 즐긴다. 요리는 망쳐도 살려 낼 방법도 있고 재료를 키우는 일 같이 기초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근사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 즉, 요리에는 성공 포인트가 많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모든 어려운 병을 극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두의 머리와 경험을 모아야겠죠. 흔히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고 하죠. 하지만 어깨는 너무 거창하고 저는 거인의 어깨 위에 조금 더 얹혀진 어깨 패드 정도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채종희 교수는 후배들, 그리고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 혹은 디딤돌이 되어주고자 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희귀 질환 관련 연구들은 꾸준한 인내와 노력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녀는 후배를 위한 기반을 만들고 그 기반 위에 후배 의사, 과학자들이 큰 열매를 맺기를, 덕분에 많은 희소 질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날들을 기도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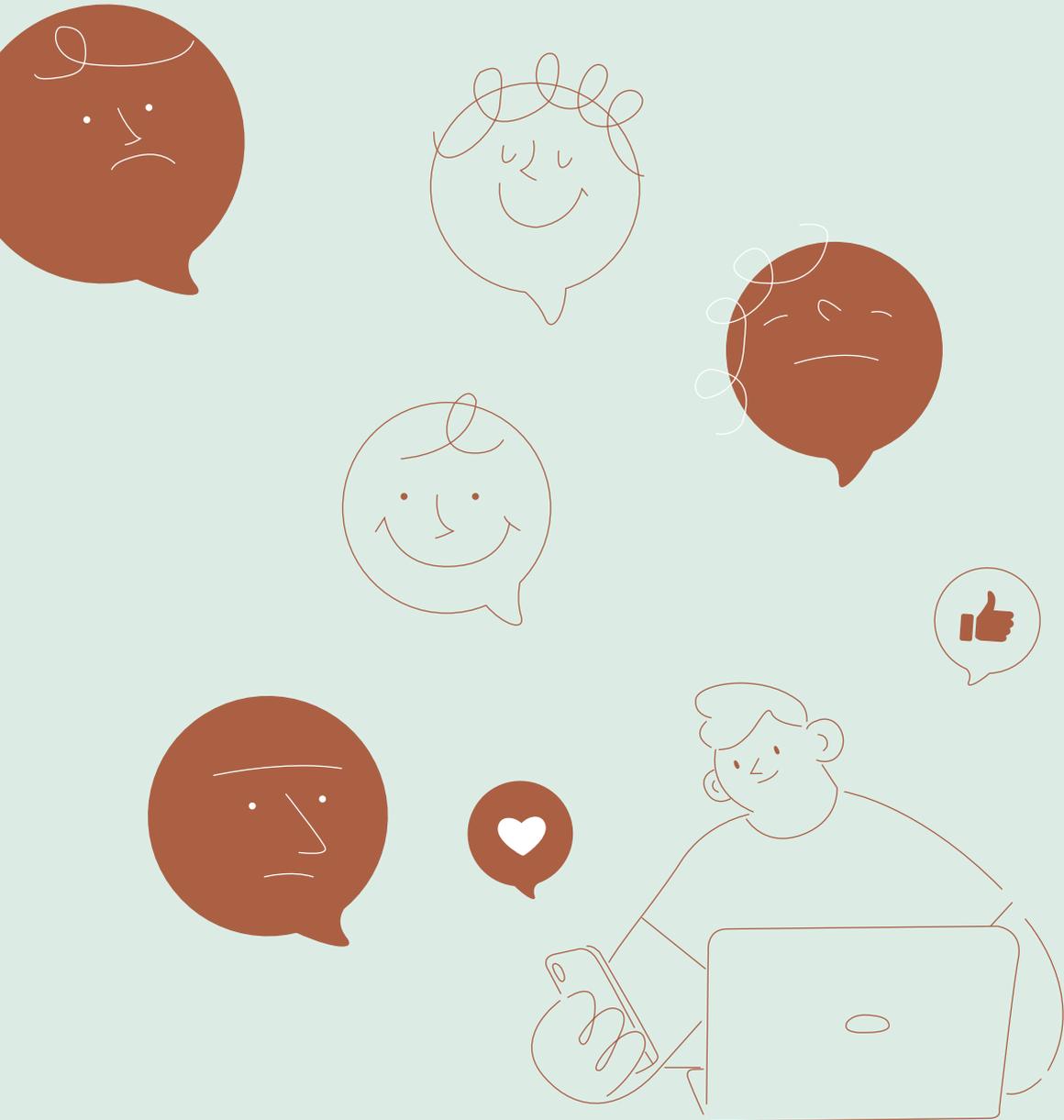
66

새로운 결정이 필요한 그 시점에
스스로가 피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시점이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 아닐까요? 99



달라진 시대, 새로운 표준에 대한 마음 챙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달라지고 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 속에서 혼란과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화를 참기 어렵다’ 행동적 면역 시스템과 혐오



악수는 친밀감을 표시하는 인사 예절이다. 그런데 반갑게 악수를 한 상대방이 곧장 손을 자기 옷에 닦는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상대방이 싫다는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면, 행동적 면역 시스템(behavioral immune system)이 작동되어 일어난 행동일 수도 있다. 보통 면역 시스템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반응을 가리킨다. 그런데 행동적 면역 시스템도 함께 존재한다. 신선도가 떨어져 보이는 음식에 손이 가지 않는 회피 반응 같은 것 말이다.

생체에너지를 상당히 사용해야 하는 생물학적 면역 시스템에 비해 행동적 면역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라는 긍정적 해석이 있다. 그런데 팬데믹 상황에서 일어나는 ‘아시안 혐오’ 같은 비정상적 분노 현상을 과도한 행동적 면역 반응으로 해석하는 주장도 나온다. 자신의 생물학적 생존에 위협을 줄 것 같은 부정적인 감정 자극에 ‘회피’라는 수동적 거리 두기 반응을 보이다, 더 강화되면 ‘배제’라는 적극적 거리 두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하면 ‘증오’라는 공격적 거리 두기에 이르게 된다는 설명이다.

요즘 타인에 대한 짜증, 분노를 호소하는 이가 늘어났다. 세상이 긴 시간 비정상적으로 작동되다 보니 우리 마음 안에 위기관리 시스템도 과열되고 있다. 중요한 정보와 필터로 걸러버릴 정보를 잘 나누지 못하고 분노 같은 비상 사이렌을 지나치게 울리는 상황인 것이다. 분노, 혐오, 짜증 같은 내 마음의 감정 신호에 대해 한발 물러나 객관화해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한 시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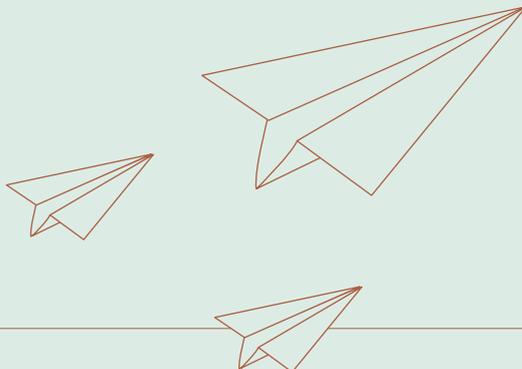
‘난 조용히 사직하겠어’ 대전환^{Great Transition}의 시기의 역설적 반작용, 활동적 타성^{Active Inertia}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이란 신조어가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유행이란 이야기를 접했다. 송별회도 없이 조용하게 사직하는 것인가 했더니 아니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본적 업무 이상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 대전환 시기라 하는 지금은 조직과 개인에게 더 큰 도전과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만큼 개인의 마음이 지친, 번아웃 시기이기도 하다.

조직의 리더들이 호소하는 대표적인 고민은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코치했는데 구성원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스스로 무능력한 리더로 느껴지며 자존감도 떨어졌다’는 것이다. 과연 타인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노력만 하면 가능한 일일까? 마음에 여러 욕구가 있지만 강력한 두 개를 꼽아 보자면 친밀감과 자유이다. 좋은 관계를 갖고픈 욕구도 있지만, 동시에 자유에 대한 엄청난 욕구가 존재한다. 누군가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나의 자율성을 건드리는 자극이기에 저항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리더십이란 영역이 만만치 않다. 목표를 정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 이에 비해 실제 수행을 위해 구성원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기에, 어찌 보면 리더십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구성원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나치게 자신을 무능한 리더로 몰 필요는 없다. 과도한 자기비판은 리더십의 힘을 약화시키기 쉽다.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전환, ESG 등 굵직한 이슈들이 변화를 주도해야 하는 리더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활동적 타성^{Active Inertia}은 세상이 변화를 요구하지만, 개인과 조직은 기존의 틀에서 안락함을 찾으려는 경향을 이야기할 때 사용된다. 변화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조언과 기법이 존재한다. 많다는 것은 쉽지 않고 정답이 없다는 이야기일 수 있다.



뉴노멀 시대에 다시 부각되는 회복탄력성, 그리고 마음의 재평가^{reappraisal} 기법

전 세계인이 팬데믹, 경제적 불안정성,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 현상 등 스트레스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우울 증상 증가부터 비즈니스 결정 장애에 이르기까지 사회심리적 기능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인류가 동시에 고통을 당하다 보니 역설적으로 마음의 맷집이라 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resilience} 관련 연구가 활발하다. 회복탄력성 관련 요인으로 ‘긍정적 평가 스타일^{Positive Appraisal Style}’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긍정 반응을 일으켜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킨다. 87개국 2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진행된 최근 한 연구는 ‘긍정적 평가 스타일’을 강화하는 ‘재평가^{reappraisal}’ 기법을 훈련한 경우 부정 반응은 줄고 긍정 반응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재평가란 예컨대 ‘사람도 못 만나고 운이 나빠 이런 시기를 보낸다’는 부정적 평가를 ‘사회적 거리는 나와 내 사랑하는 이들을 바이러스로부터 지킬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다’라는 긍정적 시각으로 다시 평가하는 것이다. 미래의 변화에 집중하는 재평가 기법도 있다. 예를 들면 ‘이번 코로나 위기는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누가 나에게 소중한지를 느끼게 해주었으며, 의료 시스템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도 증가시켜 미래에 보다 진보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처럼 인지 재평가를 통한 관점 전환이 가능하다. 관점의 전환은 긍정 감정을 강화하여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회복탄력성이 증가해 몸과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바이러스 위기가 아닌 정치적 갈등에도 인지 재평가 기법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다. 이스라엘 참여자에게 팔레스타인과의 갈등과 관련된 사진 등 분노 유발 콘텐츠를 보여주는 실험에서 감정적 대응이 아닌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태도로 재평가하도록 인지적 관점 변화를 연습했을 때, 분노 감정이 줄고 미사일 공격 같은 공격적 정책보다 평화적인 해결 정책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인 ‘관점 전환’은 스트레스 관리의 물론 갈등 해결 등 리더십 영역에서도 효과적이라 이야기인데 일견 너무 쉬워 보인다. 그러나 상당한 동기를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면이 있어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과 적용이 필요하다.

긍정적 관점은 무조건 좋게 생각하자는 것과는 다르다. 내 생각과 감정 그리고 현실을 과학자처럼 하나의 데이터로써 냉정하게 바라보자는 것이다. 과도한 염려나 불안 또는 왜곡된 인지 프레임에서 한발 벗어나 정확한 현실 인식과 자기 인식을 하고, 그 안에서 ‘위기 후 성장’을 가능케 하는 내면의 용기와 긍정성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다.

나를 추앙^{compassion}하라!

팬데믹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요구되는 ‘전환^{transformation}’과 자녀 양육에 있어 ‘성장’의 심리 전개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마음은 평온한 전환과 성장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영 그렇지 않다. 불안, 걱정, 우울, 좌절 등의 심리적 압박 지점^{pressure zone}을 반드시 경험한다. 전환하고 성장하려 하기에 압박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 압박의 시기에 적극적인 정서적 지원이 함께하면 전환 성공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서적 지원의 중요한 요소가 고통을 공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열린 질문과 능동적 경청과 같은 정신 치료적 접근이 리더십의 한 소통 기술로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타인보다 오히려 내 마음에 비판이나 과도한 압박으로 마음을 더 지치게 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나이 탓인지 옛날 같지 않다’란 말을 자주 듣는다. 아흔의 인생 선배부터 가끔은 20대 후반의 젊은 후배까지 이 말을 쓰는 연령 폭이 꽤나 넓다. 50대 후반인 분이 대화 중 끊임없이 옛날 같지 않다고 하기에, 그 말을 자주 쓰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물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다니 무의식적으로 그 말을 내뱉고 있었다는 것이다. ‘옛날 같지 않다’란 말을 자주 사용하면 ‘라떼는 말이야’처럼 매력도를 떨어트리는 소통일 수 있으니 줄이라고 권해드렸다.

문득 나는 어떤지 궁금해 후배들과의 저녁 모임에서 셀프 모니터링해보았다. ‘나이 들어 어쩔다’라는 말을 꽤나 반복하고 있었다. 막아보려고 해도 툭툭 튀어나오는 것을 보니 이 말을 하고픈 심리적 욕구가 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이가 들어도 젊고 강해 보이고 싶은 것이 본질적 욕구일 텐데 스스로 나이가 드니 한심해졌다고 셀프 디스를 하는 상황이다.

‘살 만큼 살았다’란 시어머니의 말에 ‘정말 멋있게 사셨어요’라 답한 며느리가 꾸중을 크게 들었다는 라디오 사연을 들었다. ‘살 만큼 살았다’란 표현은 ‘무슨 말씀세요, 이제 한창때이시죠’라는 답을 듣고 싶은 우회적 소통인 것이다. ‘옛날 같지 않다’란 말을 쓰는 마음엔 ‘아니다’란 답을 상대방에게 듣고 싶은 욕구가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혼자 있을 때도 주문처럼 ‘몇 년 전과 다르다’란 말이 나오는 것은 왜일까? 그런 말을 쓰는 연령대도 넓어지고 횟수도 잦아진 것은 왜일까?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바이러스, 경제적 우울 등과 전투를 치르며 실제로 에너지가 격하게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힘을 내야 할 때인데 영 맥을 못 추는 자기가 한심하다는 호소를 자주 접한다. 몇 년 전 자신과 비교하면 옛날 같지 않다면 스스로를 탓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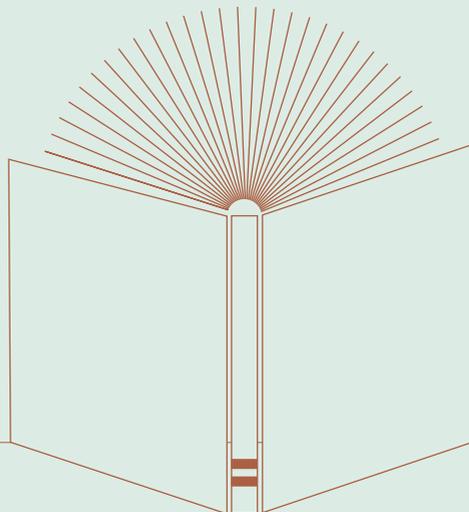
그러나 지금은 ‘자기 미움이 아닌 자기 추앙’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적절한 자기비판은 자기 인식에 근간이 되고 성숙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나를 주인공과 관객으로 분리해, 마치 나를 리얼리티 쇼의 출연자로 바라보며 편찬을 주면서 잠시 현실에서 도피하게 만드는 자기 미움은 가독이나 치친 마음에 한 번 더 내상을 줄 수 있다.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은 ‘오늘’이다. 오늘이 수년 전보다 못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온 만큼 지쳤기 때문이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내 마음에 옛날 같지 않다는 편찬보단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인 바로 오늘, ‘내가 너를 추앙한다’는 강력한 포옹이 필요하다.

나를 추앙하는 구체적인 실천은 나만의 ‘힐링 공책’ 힐링도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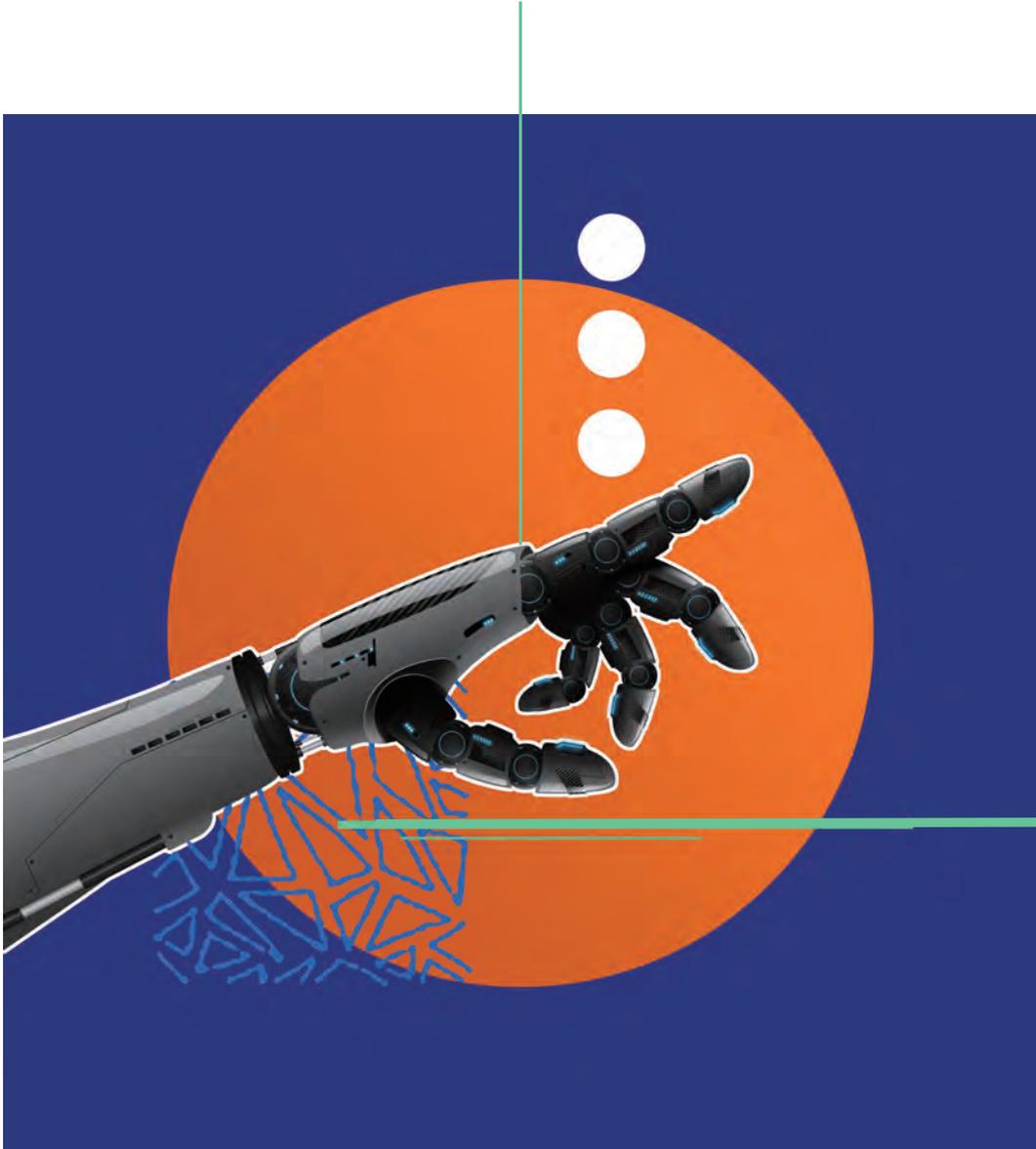
다양한 정서적 안정, 치유 방법을 가진 ‘힐링 부자_{蓄者}’는 힐링 공책이 있는 경우라 생각한다. 공책은 실제로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있을 수도 있다. 힐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힐링에도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식과 연습도 필요하다. 내 마음이 무엇에 힐링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내 마음이지만 보이지 않고 직접적인 소통도 어렵기 때문이다. 힐링의 시작은 내 마음과의 소통_{mindful communication}이다. 마음이 좋아하는 활동들을 찾아 꾸준히 삶에 적용하는 것은 중요한 마음 소통법이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 공책에 나만의 힐링 목록들이 한 줄씩 늘어나게 된다.

연구로 입증된 힐링 공책 개발 관련 조언들을 소개한다. 힐링은 긴 여유 시간을 확보해 화려한 활동을 해야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내 마음을 업무 스트레스에서 잠시 떨어지게 하는 근무 시간 중 단 10분의 작은 휴식_{minor break}도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로 지친 마음과 과도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흘러나온 생체 시스템을 원상태로 복원하는 것이다. 어떤 활동이 좋은지에 대한 답은 나에게 잘 맞는 활동이 최고이다. 동료나 부부가 같은 활동을 하거나 취미를 가지려다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다. 우정과 사랑과는 무관하게 힐링 활동에 대한 내 마음의 선호 경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힐링 공책은 번아웃되기 전에 꾸준히 채우는 것이 좋다. 지칠수록 힐링 활동이 필요한데, 정작 지치면 하던 것도 귀찮아지는 ‘힐링의 역설’이 있기 때문이다. 번아웃 상황에서 새로운 힐링 활동을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다. 미리 개발하고 번아웃 때는 적당한 것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악기 연주 같은 취미 활동은 처음에는 어렵고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나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능동적 힐링 활동이다. 이에 비해 스트레스를 주는 것에서 멀어지는 것은 수동적 힐링이라고 한다. 둘 다 가치가 있다. 힐링 활동이 기록된 나만의 공책을 가져 보자. 📖



디지털 휴먼과 함께하는 블로장생의 시대로



AI는 우리 생활 전반에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기대만큼 다양한 걱정과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결국 미래에는 지금보다 AI와 가까워진 일상을 보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I가 우리에게 어떤 전환점을 선물할지 미리 들여다보자.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수억 명을 대상으로 mRNA 백신의 효용성을 임상 실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 전 세계인의 생명을 벼랑 끝까지 내몰았던 코로나바이러스가 역설적으로 인류의 난공불락 질병으로 인식되던 췌장암, 폐암, 대장암, 흑색종 등 각종 암을 예방하는 암 백신 개발의 전환점을 만들었다. 2030년 현재, FDA는 암 예방을 위한 mRNA 백신들의 처방을 모두 승인해줬다. mRNA 백신을 종양세포에 주사하면 암세포를 유발하는 단백질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항원을 면역세포에 제시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켜 준다고 한다. 이로써 인체의 보편적 수명이 100세 정도로 향상됐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혹자는 인체 수명이 매년 1년씩 증가한다는 농담도 한다. 현대인은 진시황이 꿈꾸었다던 불로장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일까?

매일 아침 디지털 휴먼을 통해 건강진단을 받는 세상

나는 매일 아침, 디지털 휴먼 ‘수아’의 속삭임으로 잠에서 깨어난다. 침대 끝에 올려진 폴더블 화면 위에 나타난 ‘수아’는 어제 하루 동안 기록한 생체 데이터와 간밤에 측정된 생리 변화를 종합해 나의 건강 지표들을 설명한다. 또한 아침 운동부터 오늘 일정 모두를 챙겨줄 뿐만 아니라 섭취하는 식단과 건강 상태까지 관리한다. 특히, 나는 유전자적으로 중앙역제유전자인 MLH1, 세포손상이나 염증을 해독시켜주는 유전자인 GSTP, 그리고 암의 침입과 전이성을 증가시키는 유전자인 CDH1 등이 취약하다고 진단받았기 때문에 비록 유전자의 메틸화는 양호한 편이라 해도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선 식생활과 운동 처방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수아’는 내가 섭취하는 모든 음식물을 계량하고 웨어러블 센서들이 제공하는 생체 데이터를 추적 관리한다. 주치의가 처방해준 약물 복용은 물론이고 내가 등록해 둔 건강보조식품들도 일일이 간섭한다. 하루 종일 내 활동을 기록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나의 건강 상태는 물론이고 심리 상태까지 파악하고 있다. 적어도 세 사람의 비서진이 나를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해내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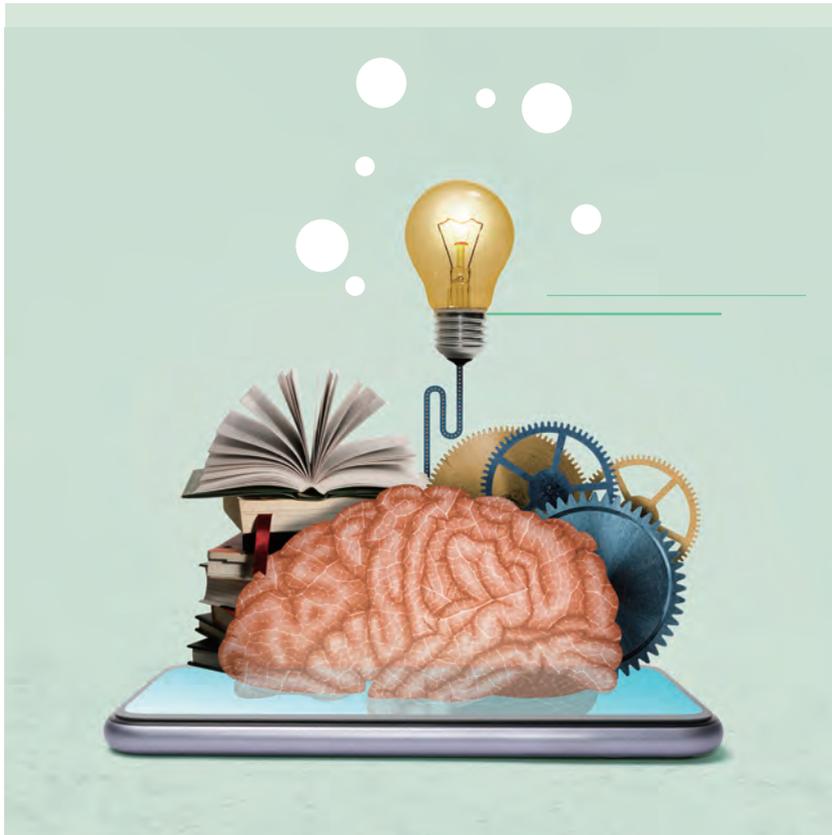
‘수아’는 내가 구독하는 서울대학교병원 디지털헬스케어센터가 파견한 디지털 휴먼이다. 오늘은 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진찰을 받는 날이라 잠에서 깨자마자, 수아의 지시에 따라 혈액검사 샘플러로 시료를 채취하고 가정용 혈당검사기를 활용해 당화혈색소를 포함한 각종 혈당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들은 자동으로 서울대학교병원 데이터센터에 등록이 된다. 담당 교수와 10시 15분에 온라인 상담이 예약되어 있으므로 교수님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진찰받을 예정이다. 교수님은 지난 4개월간 기록된 나의 건강분석자료와 가벼운 문진을 근거로 유의 사항들을 ‘수아’에게 지시하고 온라인 처방전을 발급해 줄 것이다.

AI는 진단 그리고 임상익는 처방의 역할 분담이 상식화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만 해도 의료 전문가들은 AI가 인간을 대체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현재 AI 진단은 의료진의 상식을 뛰어넘는 높은 수준의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진들도 AI의 도움 없이는 효과적인 진찰을 할 수 없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다. AI의 추론은 충분한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많은 사례가 보고되어 있고 임상적 효과도 뚜렷한 방법들을 제시하므로 의료진이 신뢰할 만하다. 특히 이미지 해석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디지털영상 데이터 속에 감춰진 돌출 데이터를 정확히 판별한다. 복잡한 임상 데이터나 조건들도 신속히 정리하여 최적의 진단이나 치료법을 가중치로 계산한다. 사실 과중한 치료 업무에 시달리는 임상익들이 새롭게 축적되는 의료 정보나 지식을 모두 섭렵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임상익이 갖고 닦은 전문 영역 밖의 의료 정보나 기술을 모두 이해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임상익는 AI 분석 결과들을 적극적으로 참조하는 경향이다. 환자의 상태를 다양한 전문 분야의 식견을 감안해서 진단해 준다는 점에서 AI 판단은 임상익가 생각하기 힘든 다른 전문 영역의 상상력을 동원하는 협진 효과를 가져다준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AI는 진단 그리고 의료진은 처방이라는 역할 분담을 고수하고 있다. 그 이유는 AI의 진단은 환자의 상태를 객관화해 추적하지 못하는 많은 현상들을 학습 과정에서 누락시키기 때문이다. 즉,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97~98% 신뢰한다고 해도 임상익가 대면한 환자의 상태가 나머지 2~3%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예외적 상황은 돌발적일 수 있지만 의료 사고를 줄이는 안전 조치 차원에서 의료진의 정밀 관찰과 암묵적 지식만이 최종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믿고 있다. 즉, 모든 환자치료의 처방과 책임은 의사에게 있으며 AI 진단은 협진 수단으로만 활용한다.

교수님은 지난 4개월간 기록된 나의 건강분석자료와 가벼운 문진을 근거로 유의 사항들을 '수아'에게 지시하고 온라인 처방전을 발급해 줄 것이다.





‘수아’는 이미 나의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관리 작업에 착수했다.

의대 교육의 핵심이 달라졌다

지난 2020년대는 의료 AI가 활짝 꽃피던 시절이었다. 다양한 의료 영역에서 풍부한 의료 데이터를 근거로 AI 알고리즘들이 실용화되었다. 특히 의료 현장에서 AI 모델을 다루는 클라우드 컴퓨터가 거의 모두 엑사플롭스(exaflops)급 속도로 작동하므로 예전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고성능 추론 모델들이 단기간 내에 실용화 수준에 이르렀다. 더욱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컴퓨팅 기술의 발달 속도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의료진은 AI 지식을 다루는 능력을 더욱 키워야 한다’는 게 의과대학의 교육 목표가 됐다. 물론 그동안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의료 교육 시도가 있었다. AI 시대엔 의사들의 핵심 능력이 암기력이나 순발력이 아니라 판단력이 될 것이라고 해서 교수들의 연단 강의 방식을 줄이고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토론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는 플립 교육 방식을 도입해서 운영해 왔다.

AI 의료 패키지는 플립 교육의 필수 교과서가 됐다. 학생들은 과제를 받으면 AI 패키지를 활용해 전문 의료 지식이나 사례 등을 충분히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한다. AI 패키지가 제공하는 다양한 해석 데이터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면서 기존 사례에서 도입했던 진단이나 치료 방식에 대한 비판력과 판단력을 키울 수 있다.

특히 AI의 진단 결과를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AI 패키지가 제공하는 판단의 허점을 파고드는 예리한 분석을 기반으로 환자의 치료 방법에 또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나 방법을 찾아내는 역량을 길러야만 한다. AI 시대에 의료 인력이 갖춰야 할 역량은 바로 AI를 다루고 AI와 토론하는 힘이다. 즉, AI가 제공하는 전문 지식을 활용하되 자신이 치료하는 환자가 AI가 제시하는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독특하게 구분되는 특성이 있는지 예리하게 분별하고 이를 치료에 반영시키는 능력이다.

최근엔 로봇수술이 상식화됐고 인체 내 신경 수술까지도 로봇팔로 처리해 낸다. 해부학 실험에서도 카데바 대신에 생체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한 e-카데바를 활용한 가상 수술 훈련이 의과대학 교과 과정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AI 로봇수술을 위한 다양한 치료 현장을

가상환경에 설정해 두고 원격 진료를 체험하거나 의료 장비를 취급하는 가상훈련 방식들을 의료 교육에 도입해 왔다. 모든 정교한 수술까지도 로봇에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에 분야를 막론하고 전문의라면 어떤 수술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AI 기술이 계속해서 수술 자동화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의과대학에선 정밀로봇을 다루는 기술 교육이 중요해졌다.

의료 AI 기술의 혜택은 건강 수명 연장에 있다

이제 병원의 수익모델은 질병 치료보다 질병 예방에 더욱 치중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건강 수명 연장에 있다. 국내외 많은 테크기업은 유명 병원들과 함께 디지털 건강관리 사업에 뛰어들었다. 질병 치료를 위한 환자가 줄어들면서 디지털 생체정보를 활용한 생애주기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이 병원의 주 수입원이 되었다. 병원에선 개인별 유전체 분석 기술, 식생활과 장내 미생물 분포의 연관 해석 기술, 거주 환경에 따른 후성유전자 변이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인자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주고 주기적인 정밀건강검진으로 맞춤형 질병예방대책을 세운다. 나 역시도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보험 혜택과 별도로 질병예방관리를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디지털헬스케어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해 디지털 휴먼에게 건강관리를 맡기고 있다.

디지털헬스케어센터는 유전자 정보, 정밀건강진단 데이터, 그리고 웨어러블 장비에서 수집한 생체 정보를 결합하여 개인 맞춤형 건강 수명 관리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헬스케어센터의 관리 대상은 건강 수명이다. 건강 수명 이후의 잔존 수명은 관리 대상이 아니다. 현재 나의 건강 수명을 98세로 추정하고 있다. 90대까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점만 해도 행복한 일이지만 나는 건강 수명을 105세로 높이기 위한 대책을 디지털헬스케어센터에 요구하고 있다. ‘수아’는 이미 나의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관리 작업에 착수했다. 📖



일상에서의 작은 활력만으로도
긍정 기분의 채널을 바꿀 수 있어요.

일상속 당신의
'전환' 방법은 무엇인가요?

마음이
가라앉는다 싶을 때,
일단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눈은 비전이 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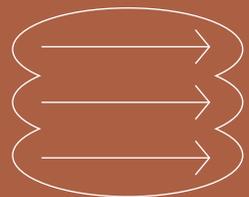


2

MOVE

우리의 생각은 행동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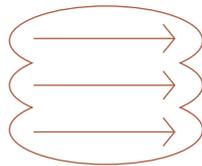
그렇게 우리는 미래로 나아간다



전환의 시대, 누군가는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이끌어 가야 한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36대 김정은 학장을 만나 서울의대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의대답게, 대학이 중심으로, 모두 함께 멀리”

김정은 학장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시고 약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학장으로 보낸 지난 시간에 대한 소감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36대 학장 김정은입니다. 취임 이후의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6개월 동안은 마음의 여유가 없을 정도로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학장의 임기가 길지 않기 때문에 당면한 과제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과 계획을 정리해 교수님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에 대해 많은 이해와 공감을 얻는 상황까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체화하는 작업이 앞으로 1년 조금 넘게 남은 것 같습니다.

🗨️ COVID-19 이후 많은 것들이 변화했습니다. 특히 의대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대학의 미션은 교육과 연구입니다. 과거 교육은 대학 안에서 이뤄지는 칠판식 교육으로, 대학에 등록해야만 고급 지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연구 분야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대학 교수로서 대학의 연구 시설,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진행해야만 큰 연구를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일반

대중들도 쉽게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대학이 아니어도 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따오는 등 연구 방식이 다양해졌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고전적 의미의 교육과 연구가 위기를 맞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2~3년 동안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측했던 일이지만 COVID-19가 기폭제 역할을 한 셈이죠. 비대면의 효과가 커지면서 시공간을 초월한 교육과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같이 아카데미 수월성을 추구해왔던 조직은 큰 위기를 맞이한 것이죠.

🗨 COVID-19 이후 맞이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서울의대’의 정체성, 방향성에 대한 기대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대가 나아갈 방향으로 ‘서울의대답게, 대학이 중심으로, 모두 함께 멀리’라는 세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각 방향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학문적 수월성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독점적인 패러다임이 약화된 상황에서 학문적 수월성만을 서울의대의 정체성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문적 수월성 외에 ‘서울의대답게’ 이끌어 가는 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 바로 아카데미 리더십과 퍼블릭 리더십입니다.

아카데미 리더십은 학문적 수월성과도 연계됩니다. 서울의대 교수님들은 국제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학회에서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내셔널 리더십과 소사이어티 리더십을 아카데미 리더십 차원에서 진흥시켜야 합니다. 또한 서울의대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만큼 의료, 의학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정론을 이야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COVID-19가 처음 나왔을 때, 과학적이지 않고 정치적인 의견이 많아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선제적으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상황을 이끌어가는 공공의 리더십, 즉 퍼블릭 리더십이 ‘서울의대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울의대 학생들의 리더십 함양까지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하시던데요. 어떤 리더십일까요?

→ 과거, 정보가 한정적인 사회에서는 ‘나만 믿고 따라와’ 하는 카리스마의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사회에서는 ‘나를 따르라’보다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공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대 학생들은 그 누구보다 치열한 경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에서 진 사람을 루저 취급하고, 반대로 경쟁에서 이긴 사람에게는 승복할 줄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현재 사회가 원하는 리더십은 포용과 승복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감과 소통의 리더십, 포용과 승복의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미래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대 학생들은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회의 리더가 되었으면 합니다.

👉 ‘대학이 중심으로’는 대학 중심의 정체성 확보에 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주변에는 서울대학교 본부인 관악캠퍼스, 서울대학교병원 그룹 등 많은 집단이 있습니다. 제1의 단과대학인 의과대학이 중심을 잡고 앞에서 이끌어 나가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과대학이 무엇으로 앞에서 이끌 수 있느냐는 물음이 있겠죠. 서울대 전체 2,300여 명의 교수님 중 1/4에 가까운 540명이 넘는 교수님들의 지지가 동력입니다. 이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의과대학이 먼저 의제를 이야기하고, 사안에 따라 앞서 서울대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 ‘대학이 중심으로’라는 방향입니다.

👉 다른 인터뷰를 통해 “서울의대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방향성인 ‘모두 함께 멀리’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지금 우리 의과대학에는 아주 많은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의과대학 교수님들은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으로도 나뉘고, 병원의 경우 근무지가 나뉩니다. 또 성별이 다르고, 출신 대학이 다르기도 합니다. 수많은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함께 가야 대학도 더욱 멀리 갈 수 있습니다. Diversity, Inclusion, Equity의 세 가지 가치를 의과대학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지향할 때 ‘대학이 중심으로’ ‘서울의대답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 말씀하신 세 가지 방향성에 맞춰 구체적으로 서울의대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혹은 무엇이 변화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 첫 번째 ‘서울의대답게’라는 방향성에 맞춰 아카데미 리더십을 고양시키기 위해 교수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 출범한 건강사회개발원을 중심으로 퍼블릭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에 대한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최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중심으로 통합 6년제 논의가 있는데, 학생들의 공감과 소통, 포용과 승복의 리더십 함양을 위한 내용을 비교과 과정에 커리큘럼으로 담기 위해서 통합 6년제 TF를 꾸려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학이 중심으로’라는 방향성에 맞춰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보라매병원 원장님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조찬 간담회를 하며 현안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같이 이끌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의대 보직자 실무모임을 통해 대학과 병원의 공통적인 의제에 대해 공유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세 번째 ‘모두 함께 멀리’에 관해서는 특히 근무지 간, 기초와 임상 간 차이가 없도록 각 병원에서 진행하는 임상교수간담회, 기초교수간담회에 참석해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비전임 임상 교원들의 교육과 연구의 가장 큰 허들이었던 대학원생 단독 지도와 의학연구원 안에서 겸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

“대학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함께 가야 대학도 더욱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고 출신별, 성별, 직급별 등에 대한 차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수 승진이나 재임 용인데, 다양성을 반영할 기준을 만들기 위해 TF를 꾸렸고 다음달이면 일차적인 초안이 나와 많은 교수님과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 9개월의 시간이 흐른 지금, 앞서 제시해주셨던 방향성 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현재의 계획도 학장 임기 내에는 모두 이행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방향성과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수님들과 이야기하고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연건캠퍼스 내의 제일 큰 문제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공간은 교수님들, 학생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제약합니다. 공간 부족의 문제를 대학로 주변의 시티 캠퍼스를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악캠퍼스 내의 의과대학 연구 및 트레이닝 공간이나 새로 생기는 시흥캠퍼스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기 어려운 것들은 씨를 잘 뿌려 다음 학장님이 이어갈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장님께서 꿈꾸시는 앞으로의 목표, 계획 등이 궁금합니다.

→ COVID-19로 인해 의과대학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육과 연구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학생들의 세대도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대도 변화해야 하는데, 그 전환점이 저와 같은 젊은 학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전환점에서 꺾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교수님, 교직원분들, 학생들과 계속해서 공감하고 소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장이 된 첫날부터 고민했던 것은 의과대학을 끌고 갈 후속 세대의 양성입니다. 저도 학장이 되기 전, 약 8년 정도 의과대학 일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뚜렷한 목표와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과대학을 이끌 수 있는 후속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도 노력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멈추지 않는 발걸음,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 의과대학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래발전위원회 ‘서울의대의 비전’ 좌담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정은 학장은 ‘서울의대답게, 대학이 중심으로, 모두 함께 멀리’라는 세 가지 방향성을 통해 글로벌 의학 리더로 도약하는 서울의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미래발전위원회는 서울의대의 현재와 미래를 돌아보고, ‘서울의대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서울의대의 비전’ 좌담회를 볼 수 있습니다.



강대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래발전위원장 강대희입니다. 앞으로 서울의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좌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서울의대가 한국 사회와 의료계에 기여했던 점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부하장을 맡고 있는 신현우입니다. 저는 미래발전위원회에서 앞으로 서울대 연구 분야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여러 위원님과 의견을 나누고, 그것을 학교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좌담회를 통해 서울의대에 바라는 희망이나 연구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언해주시면, 이를 여러 위원님과 의견 나누면서 학교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현우



손지웅



저는 LG화학에서 생명과학사업 책임을 맡고 있는 손지웅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래발전위원회의 외부 위원으로, 서울의대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기존의 프레임을 벗어나는 시각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동문 중에 선도적으로 업계에 진출했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신해 제가 새로운 시각과 생각을 전달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전추진단 단장, 미래발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원입니다. 의료나 의학 교육이 많이 변화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은 급격히 팽창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저 같은 임상교수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의과대학에서 제도적으로 아직 소화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의과대학이 병원의 임상교수들을 어떻게 품고 대학이 중심으로 어떻게 의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 가능한 목표들을 함께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대희 미래발전위원회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세우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의료계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의학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나오고, 신약 개발도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 교육이 그 속도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돌아보고 분석해 미래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미래발전위원회의 역할입니다. 더불어 서울의대 학장님의 학교 발전에 대한 운영 계획을 분야 별로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된 미래발전위원회는 매달 한 번씩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서울의대 교수와 학생의 창업부터 연구, 교육, 리더십, 국제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달에는 교수 승진 등 제도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리더십 특강을 3번 진행했는데, 최근 코넬대학교 학장님을 초대해 변화하고 있는 미국의 의학 교육에 대해 듣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앞으로 비전추진단과 협업하면서 서울의대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지표를 모니터링해 필요한 내용들을 자문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서울의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손지웅 사장님께 먼저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웅 서울의대는 한국 의학 교육의 선도적인 리더, 그리고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서 ‘어떻게 자원을 배분하고 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는 기존의 프레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달라지는 프레임에 적응하거나 또 다른 프레임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의학 교육과 의사의 진료 방향을 선도하는 서울의대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대의 발전 방향이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의 리더로서 현상을 이해하고 사회에 대한 이해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대희 개념적이고 총론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서 의학 교육도 중요하고 연구 역량 강화도 중요한데 앞으로 미래발전위원회에서 다루면 좋을 주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손지웅 저는 ‘경의회’라고 경계를 벗어난 의사들 모임의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대 총동창회의 한 지회인데요. 130명의 동문이 사회 각지의 비진료 전문 영역에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언론계 그리고 제일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산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이야기해보니 이 영역에 정형화된 길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뜻이 있거나 관심이 있어도 어떤 길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런 불확실한 길에 대해 선례나 관계 등을 안내하고 조언해 줄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소개와 가치를 미래발전위원회에서 잘 연결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강대희 김기원 단장님은 미래발전위원회 간사이기도 하면서 비전추진단의 단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비전추진단의 소개와 함께 미래발전위원회의 협력 포인트들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기원 눈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병원 임상교수와 의과대학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임상교수들이 병원에서 교육·연구·진료 분야의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학에서는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고, 상당히 시간이 지나면서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수 제도 틀만으로는 임상교수들이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비전추진단과 미래발전위원회가 선도적으로 함께 논의하면서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대희 최근 THE (THE Times Higher Education) 랭킹에서 서울대학교가 국내 1등 자리를 뺏겼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미래발전위원회가 서울의대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하는지, 연구 분야에서의 미래 발전의 현실과 미래를 조망할 수 있도록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식이 대학교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해서 더 빠르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연구,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우 교수



신현우 연구라고 하는 것이 창처럼 굉장히 뾰족해져야 하는 순간도 있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무더져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한동안 굉장히 뾰족하게 각 분야에 있는 선배 교수들이 큰 역할을 수행해 오다가, 최근에는 저변을 넓혀 양적 팽창을 하면서 여러 분야에 연구자 다양성을 확충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시금 팽창된 위치에서 모두가 뾰족하게 발전해야 하는 시기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연구들이 실제로 혁신의 사이클을 돌리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연구 결과들이 지식의 수준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상용화되어 실제로 의료 현장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는 연구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개별 연구자들이 이를 계속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의사과학자의 필드에서 지식이나 경험, 과학자로서 끈기 있게 문제를 두드리고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잘 조화된 인재가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식이 대학교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해서 더 빠르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연구,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대희 학장님도 의사과학자에 관심이 많으시고 국가적으로도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의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어떤 것이 있고,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요?



신현우 서울의대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초창기에는 의사로서 기초학문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전문의 또는 기초학문을 전공하신 분들이 모교에 와서 다시 교수가 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기존의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심층적으로 개편해서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단이 올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양성사업단에서는 학부생부터 전공의, 전일제 대학원생에 이르기까지 의사과학자의 자질을 함양할 많은 기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순환되면 향후에는 사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의사과학자를 서울의대가 많이 배출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강대희 최근 서울의대에서 창업한 교수님들이 40명이 넘습니다. 예전에는 창업과 같은 일을 하거나 하라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의대가 어떻게 준비하고 변신할 수 있을지, 손지웅 사장님께서 그동안 산업계에 계시면서 느꼈던 것들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손지웅 지금 산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있다고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연구나 진료뿐만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치료와 진단,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환자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산업 현장에서는 환자와 진료 환경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서 의사가 절실합니다. 반대로 의사는 회사나 산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병리학, 약리학, 내과학은 체계적으로 배웠지만 기업을 어떻게 영속하고 투자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완전히 생소한 거죠.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 뜻을 세워 업계로 나가도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산업계에서 중요하게 느끼는 가치의 이해, 회사나 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의과대학 교육 과정에 넣을 수는 없으니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일렉티브 코스(elective course, 선택과목)처럼 4주 동안 회사에 와서 실습한 경험을 가지고 돌아간 친구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의 운영 쪽 안에서 조금 더 활성화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대희 앞서 말씀해주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것이 교육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 가능한 이른 시기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으로 의학 교육 과정에서 연구 역량이나 창업 같은 과정들을 어떻게 스며들게 할 수 있을까요?

↙

의과대학 6년을 하나로 엮어서 많은 연구를 경험한 후에 임상 필드에 나가는 식으로 기획하려는 노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우 교수



신현우 2016년 이종욱 의학교육과정으로 개편하면서 의학 연구에 관한 커리큘럼을 확대해 전 학년에 체계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본과 2학년 때, 약 10주간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관련된 연구를 계획서부터 성과를 내는 것까지 직접 수행하는 것을 다른 수업 없이 전일제로 활동하는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교수님들도 굉장히 긴 기간이라 부담스러워하고 학생들도 안 해보았던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비교적 잘 정착돼 학생들이 미리 자기가 원하는 연구를 어느 곳에서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등 적극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준 높은 저널의 SCI 페이퍼를 학부 과정 중에 작성하는 사례도 있고, 여러 전문학회나 학술대회에서 직접 학부생으로 발표하는 기회들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에 노출이 되는 기회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기 위해서, 최근 여러 통로를 통해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의과대학 6년을 하나로 엮어서 많은 연구를 경험한 후에 임상 필드에 나가는 식으로 기획하려는 노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희 미래발전위원회가 발족한 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많은 일을 이뤘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김기원 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내년에 미래발전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면 좋겠다, 앞으로 다시 한 번 서울의대의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원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의료와 산업이 변하면서 진료하는 의사가 아니어도 환자와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약간 반대 방향의 접근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혹은 가지게 될 기술이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과거가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다는 추상적인 사명을 지키면 되었던 시절이었다면 지금은 너무 많은 무기가 생겼습니다. 오히려 ‘환자의 수명을 10년 늘려주면서 10년간 장애를 가지고 살게 한다면 그게 옳은 일인가? 어떤 사람의 수명을 1년 더 늘리기 위해 국가 재정 10억 원을 투자하는 게 경한 환자들 진료비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가?’ 하는 고민도 같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미래발전위원회 활동이나 여러 가지 비전에 관련한 문제에서 이루어진 고민들이 교육 제도나 의과대학의 제도적인 가변화를 수반해야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인문학적인 고민을 함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기술의 변화 또는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도 노출해야겠지만, 중심을 잘 잡기 위한 인문학적 교육에 대해서도 의과대학이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강대희 “미래는 어떤 인재를 원하는가.” 의학의 발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융합형 인재를 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공학을 바탕으로 하는 의학자,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의사기도 해야 하고 인공지능을 통한 의료 발전도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2년 후, 2024년이 되면 의학교 개혁 125주년이 됩니다. 서울의대는 한국 사회와 의료계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제대로 돌아보고 우리 대학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통과 융합으로

완성되는 미래 의학



박철기 교수가 말하는 미래 의학과 메타버스

최근 몇 년 사이 메타버스가 화두가 되면서 의료계에도 메타버스 바람이 불고 있다. 의료메타버스학회 박철기 교수를 만나 진정한 의미의 의료 메타버스와 미래 의학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나날이 발전하는 의학 속에서 주목받는 메타버스

우리가 어릴 적 상상하던 미래에서 빠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건강하고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는 사람들, 매일 나의 건강을 관리하는 인공지능, 만능에 가까운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에 관한 것들이다. 하지만 상상 속 미래 의학은 어느새 우리의 일상에 가까워지고 있는 듯하다. 흔히 미래 의학을 '4P 의학'이라 말한다. 개인의 특성에 맞춰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개인맞춤(personalized)의학과 유전자 정보나 생활 습관 등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질병의 발생을 예측하여 대응하는 예측(protective)의학, 유전자 교정이나 각종 기능의 보강을 통해 건강을 최대한 증진시키는 예방(preventive)의학과 환자가 자신의 질병 치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참여(participatory)의학 등 미래 의학의 특징을 설명하는 영어의 앞 글자에서 따온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이후 다양한 최신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헬스케어 분야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AI, 3D프린팅, AR, VR 등 새로운 기술들이 의학 교육, 원격 의료, 의료 시스템 자동화 등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매개체로써 주목받고 있다. 이중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는 의학과 의료 전반에 접목돼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가능성과 형태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META + UNIVERSE

METaverse

의료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메타버스란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의 합성어로, 1992년 출간된 소설 <스노 크래시> 속 가상 세계 명칭인 '메타버스'에서 유래했다. 쉽게 말해 현실을 디지털 세상으로 확장시키는 것으로 가상 세계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메타버스'라고 하면 흔히 가상공간에서 활동하는 아바타를 떠올린다. 하지만 이는 '의료 메타버스'를 이해하기에는 좁은 개념이다.

“의료 메타버스는 기존의 메타버스보다 해석을 조금 넓게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바타가 꼭 필요하지 않고 새로운 시공간 레이어에서 의료 데이터나 의료 기술, 진료 또는 의학과 관련된 교육 행위 등이 다른 사람들과 쌍방향으로 이루어지지만 한다면 그 자체를 의료 메타버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의료메타버스연구회가 서울의대 박철기 교수를 초대 회장으로 출범했다. 국내 첫 의료 메타버스 연구 단체로 주목을 받으며, 창립 6개월 만에 300명 넘는 회원이 참여해 학술 교류와 정책 자문 역할을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의료메타버스학회를 창립했다. 메타버스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역할과 필요성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메타버스학회는 그에 대한 답을 준비

항장애, 치매, 중독, 수면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에도 메타버스 기술이 더해지면 환자 개개인에게 알맞은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고 몰입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의료 메타버스의 완성으로 가는 길

“의료 메타버스는 그 자체가 데이터 혁신으로 현재의 의료전달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의료질서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미래 메타버스 의료를 구현하려면 여러 기반 기술이 발전해야 하며 환자에 대한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메디컬 체어’나 ‘메디컬 박스’ 같은 특화 디바이스도 개발돼야 할 것입니다.”

박철기 교수는 의료 메타버스가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기술적 발전이 더 이뤄져야 한다고 강

“진정한 미래 메타버스 의료를 구현하려면 여러 기반 기술이 발전해야 하며 환자에 대한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메디컬 체어’나 ‘메디컬 박스’ 같은 특화 디바이스도 개발돼야 할 것입니다.”

하고 있다.

이미 의학 교육 분야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다. 해부학 실습을 대체할 수 있는 확장현실(XR) 의학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메타버스를 통해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자료를 놓고 소통하는 메타버스 의학 교육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해외의 경우 환자나 보호자 교육이나 재활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다. 게임과 같은 재미있는 가상공간을 통해 운동의 효율을 높이고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통증은 줄이고 재활의 효과는 극대화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는 수술장 안에서 콘솔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로봇수술도 원격 수술을 지나 2~3명의 수술자가 동시에 접속해 소통하며 수술하는 메타버스 수술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외래 진료나 협진, 검사도 메타버스 공간에서 다양한 진료과 의사와 환자, 보호자가 모이는 ‘메타버스 진료’로 구현될 수 있다.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 공

조한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적잖다. 진료,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구현과 활용이 가능한 만큼 법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 줘야 한다. 현재는 메타버스 관련 법제도가 아예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는 이 질서를 누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를 앞으로의 싸움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가상 세계’ 특성상 의료 분야에서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자동차를 잘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선도할 수 있는가. 즉, 교통 시스템을 누가, 어떻게 더 잘 만드는가의 싸움일 것 같아요.”

의료메타버스학회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것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개인이 완성할 수 없는 만큼, 학회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통해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학회의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미래의 병원은 한산한 병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검체가 필요하거나 특수한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특히 인지기능검사 같은 것들은 집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원격 진료가 이뤄지면 환자 의사 모두 병원으로 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박철기 교수는 의료 메타버스의 확장으로 완성되는 미래의 병원은 한산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검사가 이뤄지거나 이동형 장비를 통해 가벼운 검체 채취가 이뤄질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진단하고 진료를 받는 것이 꼭 병원에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공간적으로나 인력적으로 많은 여유가 생길 것이고, 그런 식으로 메타버스 병원의 원형이 만들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 메타버스’의 등장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묻는다. 하지만 박철기 교수는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전화기냐? 사진기냐? 물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의미가 정립되고 정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의 정의는 무의미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지금처럼 일방향이나 양방향으로 서로 소통할 때 진정한 의료 메타버스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한다.

“메타버스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은 메타버스를 이용한 미래 의학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은 0.01%도 안 되겠지만, 점점 적용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전통적인 의료와 함께 조금씩 범위가 늘어날 거예요. 갑자기 메타버스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일상을 파고드는 거죠.”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 기술을 너무 탐닉하게 되면 목적이 되어버린다.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될 분야에 적용하다 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유용하게 쓰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박철기 교수는 현재 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후속 세대에게 그러한 마음가짐,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누군가 길을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길을 잘 닦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메타버스를 의학 교육 분야에 처음 도입했던 것처럼 서울의대가 이런 것들을 공식화하고 개발 인력도 양성하며, 기술 개발 등 연구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선도적으로 길을 개척하는 만큼 이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 심사숙고해서 판단하는 것이 서울의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 많은 인터뷰를 통해 메타버스 전도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의 본연의 분야, 뇌중앙 쪽으로 앞서 말씀드린 메타버스 정의와 맞는 결과물이나 시스템을 하나라도 만들어서 실제로 의료 현장이나 적용하고 싶습니다.”

박철기 교수는 의료 메타버스를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소통’에 대해 이야기한다. 진정한 메타버스의 의미가 서로 소통하는 양방향에 있기도 하지만, 메타버스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립되어 갈 ‘의료 메타버스’의 미래가 기대된다. 📄

“메타버스 정의와 맞는 결과물이나 시스템을 하나라도 만들어서 실제로 의료 현장이나 적용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전환의 순간은 어쩌면 아주 작은 고민에서 출발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삶 속에서 소소한 변화의 씨앗을 축적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주)실비아헬스의 고명진 대표를 만났다.

일관적인 삶의 태도가 만드는 소소한 대전환

고명진 (주)실비아헬스 대표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

실비아는 사용자들의 라이프스타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치매 조기 진단과 예방에 도움을 주는 인지 건강 관리 플랫폼이다. 고명진 대표가 지금의 실비아헬스를 이뤄내기까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마치 그가 '전환의 산증인'처럼 느껴진다. 수학과에서 경제학도로, 의대생에서 스타트업 창업가로 변화한 남다른 이력을 가진 덕이다. 프린스턴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던 고명진 대표는 식음도 전폐하며 수학에 매진하는 친구들을 보며 처음으로 '나는 수학보다는 밥이구나, 그럼 나는 무엇을 하고 싶나'라는 고민에 빠졌다. 이후 사회 문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사회경제학에 매력을 느껴 경제학을 공부하던 그녀는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다. 한국에서 미국까지 14시간 비행도 끄떡없을 만큼 정정하셨던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것이다. 어릴 때부터 조

'비대면 봉사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당시 여러 기관에 비대면 봉사 프로그램을 건의했지만 허락한 곳은 단 하나였다.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어르신들 대상의 비대면 건강 관리가 가능하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다.

실비아헬스로 치매, 조기에 발견하세요!

2020년 시드 투자 유치 이후, 올해 1월 정식 서비스를 오픈한 실비아헬스. 최근에는 다수의 투자사들로부터 Pre-A 단계 투자 유치를 완료하며 그 가능성을 또 한 번 입증했고, 정부 주도의 비의료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그런데 고명진 대표가 많은 질함 중에서도 '치매'와 관련된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할머니를 간호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당시 할머니께서 치매를 걱정하셔서 약을 드시고 계셨더라고요. 치매는 아

“할머니께서 특히 치매에 대한 고민이 많으셔서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해주셨죠. 지금은 저의 가장 까다로운 고객이자 든든한 지원군이세요.”

부모님의 손에서 자란 그녀에게 이 일은 삶의 궤적을 바꿀 정도로 큰 사건이었고, 한국으로 귀국해 1년 동안 할머니를 간호하며 서울의대에 진학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의대에 진학한 이후에도 고명진 대표는 다양한 아르바이트와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내가 매진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복지관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의 수학 공부를 돌봐주기도 하고,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환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독거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방문 진료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모두 별개의 활동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 모든 활동은 한 가지의 뜻을 관통하고 있었다. 간절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일, 그들에게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일을 한다면 굉장히 보람 있겠다는 것. 고명진 대표는 그런 경험과 소소한 성공을 통해 '실비아헬스'라는 비대면 케어 서비스의 아이디어를 얻게 됐다. 학업으로 봉사활동이 힘들어지는 의대생과 어르신들을 위한

니셨지만,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경도 인지 장애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표준 치료가 존재하지 않아요. 병원에서도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하면 팜플릿 정도만 나눠주고 '관리 잘 하시라'고 조언하는 것밖에 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만큼 관리가 쉽지 않은 게 경도 인지 장애예요.”

우리는 흔히 '치매'라고 하면 아주 극한의 상황을 떠올린다. 방금 일어났던 일이나 말도 기억하지 못하고, 감정 표현에 서툴러지거나 신체 기능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런 상태는 치매가 중증 이상으로 접어들어야 나타나는 현상으로,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 상태에서는 관리만 잘 하면 중증으로 진행되는 속도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치매란 조기 발견과 예방이 매우 중요한 질환이기에, 고명진 대표는 경도 인지 장애를 스스로 점검해보거나 예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다.

“제가 창업을 한다고 하니 친구들은 놀랐고 조부모님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안정적인 직업을 버리고 험난한 사업에 뛰어들다니 당연히 걱정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제가 계속 ‘이런 기술을 만들 거다’라고 설명하기도 했고, 할머니께서 특히 치매에 대한 고민이 많으셔서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해주셨죠. 지금은 저의 가장 까다로운 고객이자 든든한 지원군이세요.”

이용자와 의료진, 모두가 인정하는 서비스를 향해

실비아헬스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 상태의 환자 분들이나 ‘주관적 인지 저하’ 상태인 중장년, 노년층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다. 주관적 인지 저하란 건 망증 때문에 불안감이나 불편감이 지속되지만, 검사를 진행해보면 정상으로 나오는 상태를 뜻한다. 이런 분들이 치매를 조기 발견하거나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인 실비아헬스의 주요 기능은 크게 ‘평가’와 ‘관리’로 구성된다. 오프라인의 건강 관리 서비스를 완전한 온라인으로 대체하자는 것이 아닌, 오프라인 인프라와 함께 활용되어 시너지를 내자는 것이 실비아헬스가 추구하는 역할이다.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 증상 발현 후 병

원에 가기까지 약 3년이 걸린다고 할 정도로 치매 치료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면 받을 수 있는 수혜가 의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명확한데, 이 점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도 인지 장애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주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수 있게끔 안내를 도와주는 플랫폼이 되고 싶어요.”

실비아헬스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서비스, 일명 ‘휴먼 터치’를 위해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을 코치진으로 모시고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이용자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기존의 일방향적인 치매 진단이나 교육을 제공하기보다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콘텐츠 자체도 이용자 각각의 취향을 반영하여 예방과 학습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의료진들에게도 실비아헬스의 과학성을 납득시키고 병원에 내원한 이용자들의 데이터가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진단 과정과 성과를 입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용자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것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것. 이때문에 계속해서 사용성 보완 작업 또한 진행하고 있다.



실비아 서비스 화면



사람과 함께하는 일, 일상에서 만드는 작은 전환점

고명진 대표가 실비아헬스를 지금의 궤도까지 올려놓는데 가장 집중했던 것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것도 사람이었다.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하고, 곳은 일을 맡아하던 그녀는 직원들에게 일을 ‘위임’하는 것조차 몰랐다고 과거를 복기한다. 지금은 시스템의 중요성을 깨닫고 적재적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본인은 대표로서 해야 하는 일을 찾아 집중하고 있다. “지금은 의사결정을 제가 하지 않아요. 실무진들에게 맡기니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조직이 더 원활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옛날엔 멋지고 번드르르한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직의 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만들어가는 우리 팀, 바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명진 대표 본인은 스스로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은 정말 우연한 기회에 ‘실비아헬스’를 만들어 이어나가고 있지만, 어쩌면 자신은 늘 본인이 갖고 있던 생각의 일관성을 따라 왔을 뿐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 의사 혹은 의과학자라는 멋진 길을 두고 다른 길을 꿈꾸라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다면 막연한 아이디어에 집착하기보다 사업에 대해 철저히 공부할 것을 권했다. 더 없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나만의 아이디어는 사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거나 혹은 이미 생각했던 것들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말한다. 또한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에 사람들과 하는 일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이밖에도 그녀는 일상 속에서 작은 전환점을 찾으라고 말한다. 꾸준히 봉사를 하거나 호기심이 생기는 분야의 책을 읽는 등 일상 속에서 좋아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언젠가 그 일에 확신이 드는 순간이 있다는 것. 그런 과정을 거쳐 자신이 준비가 되었다면, 비로소 그때 다른 길로 뛰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위기들을 겪다 보니 저 자신이나 세상에 대한 구체화가 되더라고요. 마치 돌을 깎아나가는 것처럼요. 내가 사람들과, 또 사회와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채워야 할지 구체화되니까 저에게는 사실상 위기가 더 큰 자산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고명진 대표의 최종적인 꿈은 직원들과 함께 ‘우리가 꿈꾸는 장면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람들이 ‘경도 인지 장애’라는 단어를 친숙하게 사용하고, 경도 인지 장애 환자와 보호자들이 실비아를 의사에게 직접 추천하기도 하는 장면 말이다. 그 꿈과 목표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뚜렷해서 어떠한 도전과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한다. 그녀에게 ‘의대생이 창업가가 됐다’는 것은 작은 전환에 불과하다. 진짜 대전환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일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한번쯤 전환의 순간을 맞이한다. 전환을 눈앞에 두고 주저하기보다는, 자신만이 가진 가치관의 일관성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는 그녀처럼 인생 속 전환을 맞이해보자. 📖

“조직의 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만들어가는 우리 팀, 바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역사는 전환의 연속체다. 크고 작은 전환의 순간이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을 만든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그 명성과 위상에 걸맞은 발전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해왔다.

서울의대 역사의 터닝 포인트 ‘미네소타 프로젝트’

MINNESOTA PROJECT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한눈에 보는 타임라인

1950s

1954. 9. 28.

‘미네소타 프로젝트’ 본계약 체결
1957년 9월 30일까지 의대, 공대, 농대 등
서울대학교의 3개 단과대학에 교환교수
프로그램, 시설복구, 장비 지원 등의 사업에
모두 180만 달러를 지원하는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출범



미네소타 대학 총장 서한, 1954
© 서울대학교 기록관

1954~1961

서울의대 및 부속병원의 건물 보수 및 시설 확충
의대 건물에 14,700달러, 부속병원에
525,700달러, 간호학과 154,800달러 사용

1954. 10.

1954년 10월 주한 수석자문관인
슈나이더(Arthur E. Schneider) 한국 주재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이 종료되는
1961년 6월까지 6년 8개월 동안 한국 주재



미네소타 대학교와 기술원조 협조 협정 체결, 1954. 9. 5.



© 서울대학교 기록관

1950년대 한국 사회와 서울의대

1950년대 한국 사회는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것이 후진적이었다. 우리 민족은 일제로부터 만 35년 동안 가혹한 억압, 수탈, 차별에 시달렸다. 해방의 기쁨과 동시에 찾아온 남북분단은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우리나라는 통일신라와 발해를 ‘분단’이라고 규정하더라도 고려, 조선 왕조를 통틀어 천 년 동안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갈라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극심한 인명 피해와 국토의 황폐화는 물론 냉전적 분단체제를 가져왔다. 그 후 독재정치, 부정부패, 절대적 빈곤 등 온갖 후진적 상황은 한국인의 삶에 엄청난 고통과 좌절을 안겨주었다.

당시 감염병의 유행이 빈번해서 국민들의 건강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콜레라, 장티푸스 등 급성 감염병이 삽시간에 휩쓸고 지나가다가 하면, 당시 ‘국민병’이라 불리던 결핵과 기생충병의 위력도 대단했다. 게다가 한국전쟁으로 인해 병원 시설이 상당수 파괴되었고 의료진도 부족했기에 국민들의 근심과 걱정은 끊이지 않았다. 서울의대와 부속병원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한국

전쟁 당시 북한군이 의료기기와 약품을 대량으로 가져갔고, 교수진과 의료진의 상당수가 사망하거나 실종, 혹은 납북되었다. 전쟁 중 군의관이 되어 전상병 치료에 헌신한 교수진의 복귀도 정부 방침 등 여러 사정으로 늦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서울의 대학과 병원에 돌아온 교수진과 학생들은 끔찍했던 전쟁의 상흔에 짓눌려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하기가 어려웠다. 한마디로 서울의대와 부속병원은 돌파구가 필요했다. 전후 복구와 함께 의학, 의학 교육 방식을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전환점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기적처럼 실제로 일어났다. 바로 ‘미네소타 프로젝트’ 덕분이었다. 미네소타 프로젝트란 1954년 9월부터 1961년(행정대학원은 1962년)까지 총 6년 8개월 동안 미국 정부가 서울대학교에 시행한 교육원조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제3세계 국가들에 지원한 교육원조 사업 중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대규모였다. 특히 서울의대와 부속병원은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 연구, 진료 등 모든 면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1955년 이후

기초의학 건물 3층 옥상에 도서관을 증축하고 매월 60여 종의 의학잡지를 지원받으며 의과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점차 갖추게 됨

1956

일제 말기에 착공했지만 중단되었던 서1병동(부인과 병동)과 서2병동(소아과 병동)이 들어 있는 2층 건물 완공. 난방, 수도 및 전기설비 보수, 복도 개수, 도로 포장 등

1955. 9.

- 제1진 12명의 서울의대 교수진 및 대학원생들이 미국 미네소타대학 연수 및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출발
- 당시 부속병원장이자 외과학교실 주임교수였던 진병호를 필두로 감염내과학의 선구자 전중휘, 조교수이던 서병설(기생충학), 홍창의(소아과), 백만기(이비인후과) 등. 그리고 대학원생인 이상돈(생리학), 이호왕(미생물학) 등도 포함
- ~ 1961년까지 지속, 총 77명 참여
- 건물의 지붕을 개수하고 수도 및 전기시설을 보수
- 동물실, 강당과 복도 등도 보수



홍창의 조교수(1955, 여의도비행장에서 미국으로 떠나며)

시설 복구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시행으로 1954~1961년 서울의 대 및 부속병원의 건물 보수 및 시설 확충을 위해 695,200달러가 투입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의대 건물에 14,700달러, 부속병원에 525,700달러, 간호학과에 154,800달러가 사용되었다.

의대에서는 기초교실 건물의 지붕을 개수하고 수도 및 전기시설을 보수했다. 동물실, 강당과 복도 등도 보수했다. 기초의학 건물 3층 옥상에 도서관을 증축하고, 1955년 이후 매월 60여 종의 의학잡지를 지원받았다. 병원에서는 일부 병동의 증축과 난방, 수도, 전기설비 등을 보수했다. 특히 1959년 수술장과 방사선과(영상의학과)를 증축했고, 1958~1959년 간호학과 건물과 간호사 기숙사를 신축했다. 아울러 간호고등기술학교가 의과대학 간호학과로 승격되었다.

의대와 병원의 교육연구 및 진료용 기기 도입을 위해 약 614,500달러가 투입되었다. 기초의학 부문에 231,600달러, 임상의학 부문에 381,600달러가 배정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최신식 기기들을 도입하여 의대의 교육 및 연구 시설을 대폭 보강했고, 부속병원의 진료 시설들을 현대화했다.

미국인 자문관들의 활약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의대와 부속병원에는 의과 부문 7명, 간호 부문 3명, 병원행정 부문 1명 등 총 11명의 자문관이 파견되었다. 총괄자문관 멀로니(Maloney), 매츄(Matthews, 마취과학), 슈머트(Schimert, 외과학), 골트(Gault, 내과학), 의과부문 자문관 플링크(Flink, 내과학), 브라운(Brown, 생리학), 버그룬트(Berglund, 소아과학), 간호부문 자문관 로우(Low), 윌리엄스(Williams), 줄리언(Julian), 병원행정 자문관 미첼(Mitchell)이었다.

자문관들은 강의 및 진료, 회의 참석 및 권고안 제시, 자문 및 상담 등의 활동을 벌였다. 의대의 강의 방식과 관행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고, 현장에서의 임상 교육을 강조하고 주문했다. 미국식 교육 방법과 강의 방식이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시키고자 서울의대 교수와 학생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매주 학장 및 병원장과의 연석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병원행정 전반에도 영향을 주었다.

1957

의과대학에 미국인 자문관 파견 본격화
1956~1961년 의과대학에 파견된
미국인 자문관은 총 11명, 근무기간을
통산하면 158.5개월(평균 14.4개월)

1957. 9.

- 신경외과 심보성 교수 국내 최초로 개두술 및 종양 제거술 시행
- 산부인과 김석환 교수를 중심으로 부인과 병리검사실(Patuology Lab) 설치, 국내 최초로 부인암 조기진단 사업 일상화
- 소아과 홍창의 교수가 심도자법 시행, 흉부외과 이영균 교수와 연계하여 소아 심장 수술을 활성화, 국내 최초로 백혈병을 비롯한 소아 악성종양에 대한 항암요법 시도

1957. 2. 11.

- 추가 계약 체결
사업기간을 1959년 9월 30일까지 2년 연장,
행정대학원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계약
- 진병호 교수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해 항암제 연구의 개척자가 됨



홍창의 조교수의
미네소타대학 연수 증서(1957)



오순섭 수의대 학장의 미네소타 대학교 이수증
및 승인서류, 신관순 명예교수 기증, 1957
© 서울대학교 기록관

교수진·대학원생들의 미네소타대학 연수·유학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는 서울의대 교수진 및 대학원생들의 미국 미네소타대학 연수 및 유학이었다. 1955년 9월 제1진 12명이 미국으로 출발했다. 당시 부속병원장이자 외과학교실 주임교수였던 진병호를 필두로 감염내과학의 선구자 전종휘, 조교수이던 서병설(기생충학), 홍창의(소아과), 백만기(이비인후과) 등이었다. 그리고 대학원생인 이상돈(생리학), 이호왕(미생물학)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미네소타대학은 1851년에 설립되었다. 1950년대에는 학생 수가 2만여 명에 달했으며, 미국 10대 주립대학에 포함되는 종합대학이었다. 특히 미네소타의대는 역사, 시설, 교수진의 학문적 권위 면에서 당시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대학이었다. 심장학과 심장수술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였다.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도 미네소타의대와 결연을 맺고 있었다. 당시 미네소타의대 부속병원의 규모는 700여 병상이었고 시립병원, 보훈병원, 기독교병원 등과 교육병원으로서 결연을 맺고 있어서 학생 교육과 인턴, 레지던트의 수련을 수월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서울의대 교수진과 대학원생들의 연수와 유학은 1961년까지 계속되었다. 모두 77명이 참여했다. 연수·유학 프로그램은 단기 과정과 학위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단기 과정은 3개월에서 1년 동안 주로 시찰 및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간부진과 시니어급(부교수 이상) 교수들이 이에 해당되었다. 조교수와 대학원생들은 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들은 2년 이상 체류하면서 강의를 듣고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임상 분야 조교수들은 외래진료, 수술 등을 견문하거나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미네소타 프로젝트에서 가장 돋보이는 대목이 있다. 연수와 유학에 참가한 전체 77명 중 33명이 신진 연구자들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던 시대 상황을 감안하면, 젊은 조교수들과 대학원생들에게 큰 비중을 두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이례적이고 신선한 조치였다. 단기적 성과보다는 미래의 교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기본 취지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이야말로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중요한 성공 요인이었다.

1957

이비인후과 백만기 교수 국내 최초로 후두전적출술과 경부광청술 시행

1958

인턴제도 실시

1958. 12. 15.

703평의 간호학과 건물 신축

1957

학생실습제도 실시

1958

미국 미네소타 대학 교수 학생 미술작품 교환 전시회

서울대학교와 미네소타대학교는 교환 미술전시회를 열어 문화교류를 다짐. 1957년 서울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의 미술전시회가 미네소타대학교에서 열렸으며, 이듬해에는 미네소타대학교 교수와 학생의 미술 작품이 서울대학교 대강당에서 전시됨



미국 미네소타 대학 교수 학생 미술작품 교환 전시회, 19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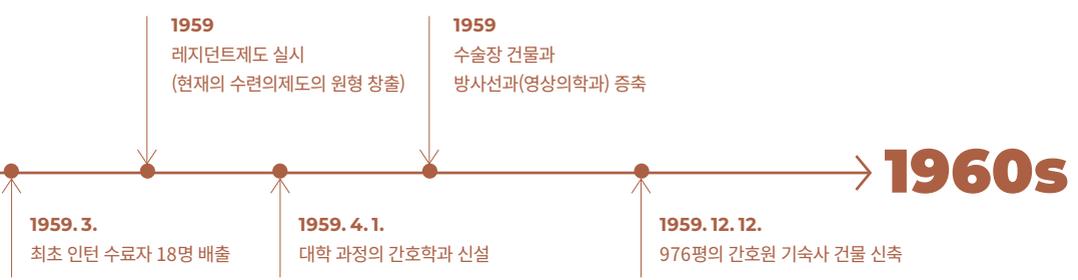
© 서울대학교 기록관

총체적 도약

미네소타의대 연수·유학을 다녀온 교수들을 통해 서울 의대와 부속병원에 미국식 의학 교육이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았다. 강의 위주의 의학 교육은 시청각 교재를 이용한 증례 위주의 토론방식으로 바뀌어갔고, 임상교육도 베드사이드 교육 등의 실천 훈련이 보편화되어 보다 풍부한 교육 수련이 시도되었다. 1957년 학생실습제도, 1958년 인턴제도, 1959년 레지던트제도가 정착되어감으로써 제도적으로도 현재의 수련의제도의 원형이 창출되었다.

현대의학의 새로운 동향도 급속히 소개되었다. 우선 임상과목들이 재정립되었다. 외과는 일반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로 분화되었고, 마취과는 독립되었다. 임상병리과가 신설되었다. 미네소타의대 연수를 통해 내과 김응진 교수는 당뇨병학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대학원생 이호왕은 미생물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유행성 출혈열 연구에 매진하게 되었다.

암 연구 및 진료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다. 외과에서는 미국식 의학 교육 방법을 벤치마킹하여 Tumor clinic을 시작했다. 위암에 대한 한 주간의 증례 보고와 특이한 사례들을 보고하는 시간으로서, 당시 희귀질환이자 난치질환이었던 암을 일상적으로 대하는 통로가 되었다. 아울러 진병호 교수는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하여 항암제 연구의 개척자가 되었다. 신경외과에서는 심보성 교수가 미네소타의대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 1957년 9월 뇌수막종에 대해 국내 최초로 개두술 및 종양 제거술을 시행했다. 산부인과에서는 김석환 교수를 중심으로 부인과 병리검사실(Pathology Lab)을 설치하고 국내 최초로 부인암 조기진단사업을 일상화했다. 소아과 또한 홍창의 교수가 심도자법을 시행하고, 흉부외과 이영균 교수와 연계하여 소아 심장수술을 활성화했으며, 국내 최초로 백혈병을 비롯한 소아 악성종양에 대해 항암요법을 시도했다. 이비인후과에서도 백만기 교수가 1957년 국내 최초로 후두전적출술과 경부과청술을 시행했다.



미네소타의대 연수 중 미니애폴리스에 모인 교수진(1959년경)



서울의대 전경(1950년대 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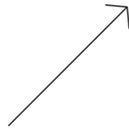
미네소타대학에서 온 시찰단(1950년대 후반)

일제 식민통치의 유산, 한국전쟁의 후유증, 그리고 독재 정치와 경제적 빈곤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던 1950년대 중후반, 서울의대와 부속병원은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의학과 현대적 의학 교육 방식을 본격 도입하여 교육, 연구, 진료를 크게 업그레이드했다. 아울러 1960~1970년대 한국 의학계를 이끌어 갈 새로운 인력을 키우는 동력을 확보했다. 📖

66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역사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99



진병호 교수(1960년대 초반, 항암제 연구)



1960

전문의 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의 자격고시제' 마련

1961

- 약국창고, 조제실 증축, 새로운 취사장과 세탁장 건물 완공
미국에서 도입한 취사, 세탁 시설이 설치되어 병원시설이 빠른 속도로 현대화
- 의대와 병원의 교육연구 및 진료용 기기 도입을 위해 약 614,500달러 투입
기초의학 부문 231,600달러, 임상의학 부문 381,600달러 배정
- 강의 위주의 의학 교육에서 시청각 교재를 이용한 증례 위주의 토론 방식으로 변화
- 임상 교육도 베드사이드 교육 등의 실전 훈련이 보편화되며 보다 풍부한 교육 수련 시도
- Tumor clinic 중앙 클리닉 시작 : 위암에 대한 한 주간의 증례 보고와 특이한 사례 보고

1961. 3. 31.

부설 간호고등기술학교 폐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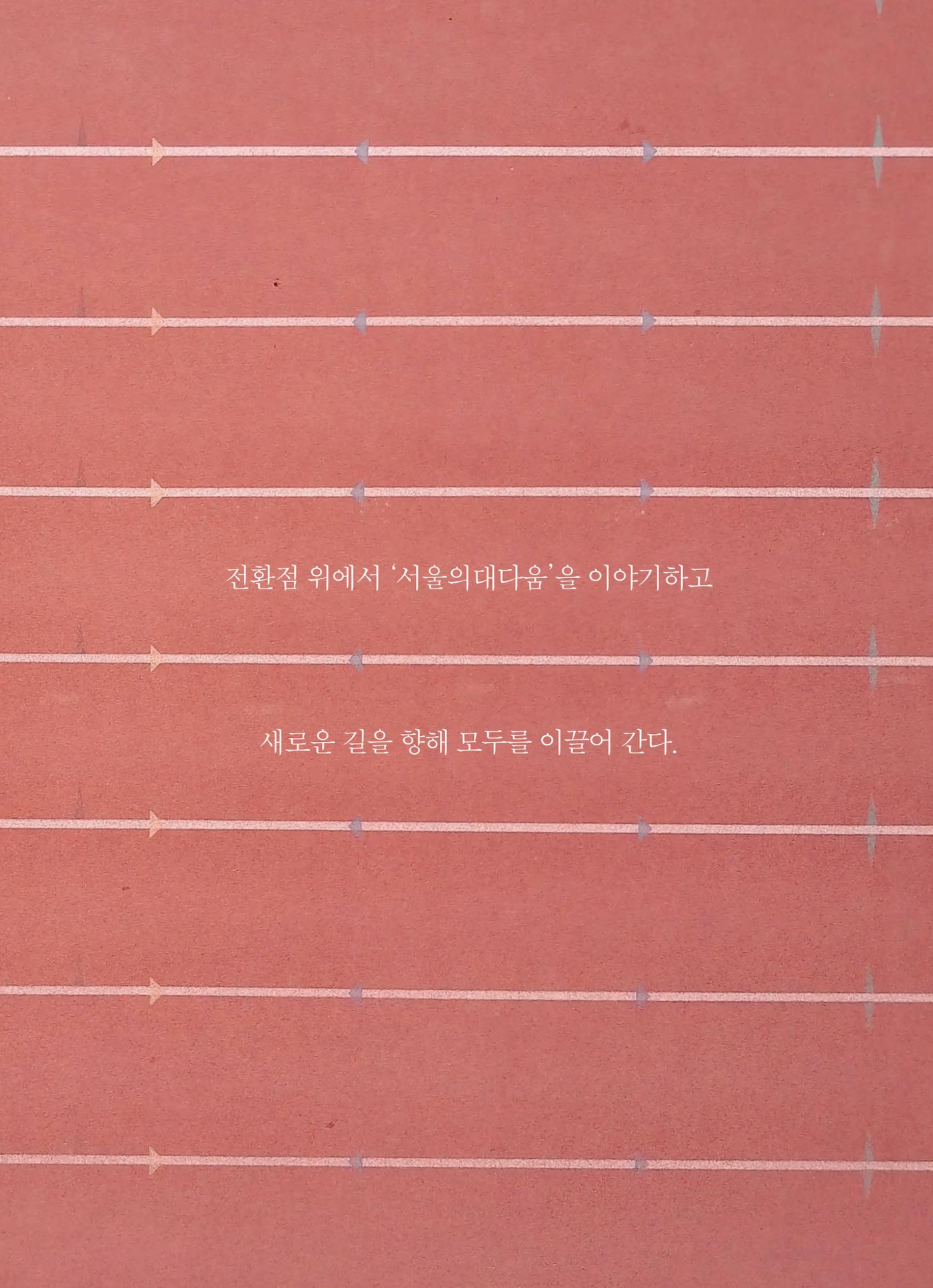
1962. 6. 30.

서울대학교에 주재하던 미네소타 고문 슈나이더 박사가 본국으로 귀환함으로써 프로젝트 종료



아놀드 박사 방문 기념 단체사진, 신광순 명예교수 기증, 1960년대 초
 © 서울대학교 기록관





전환점 위에서 '서울의대다움'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길을 향해 모두를 이끌어 간다.

1

의예과 신입생 OT 및 학부모의 날 행사 개최

2022년 2월 19일 ‘2022학년도 의예과 신입생 OT 및 학부모의 날 행사’를 Zoom 플랫폼 및 행정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김정은 학장을 비롯한 의과대학 보직자, 의예과 신입생 및 학부모 약 350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실시간으로 학부모 간담회 및 학부모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으며, ‘Quo vadis?: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라는 주제로 법의학교실 유성호 교수의 특강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대학 주요 내용 소개, 의예과 교육 과정, 선배와의 만남, 글로벌 리더로서의 품격 갖추기 등 대학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구성되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1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유화진 법률사무소 업무협약 체결식 개최

2022년 2월 24일 의과대학 행정관 대강당에서 교수정년식을 개최했다. 정년을 맞은 교수는 이종구 교수(가정의학교실), 정영섭 교수(신경외과학교실), 박성섭 교수(검사의학교실), 윤강섭 교수(정형외과학교실), 정희순 교수(내과학교실) 총 다섯 분이며, 윤강섭, 정희순 교수는 개인 사정으로 행사에 불참하였다. 정년식은 서울의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동시에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장 초청 대상을 정년 교수, 배우자, 의과대학장, 병원장, 보라매병원장, 교수협의회장, 정년 교수 주임 교수 및 의무장에 한정하여 진행했다.



2

3

2022년도 연건-관악 리더십 포럼 개최

2022년 4월 21일 행정관 대강당에서 ‘제1차 연건-관악 리더십 포럼’을 개최했다. ‘연건-관악 리더십 포럼’은 교수 역량을 강화하고 연건캠퍼스와 관악캠퍼스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기획했으며, 의과대학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매달 열린다. 첫 포럼의 연사로는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및 통일·평화연구원 원장)를 초빙하여 ‘경제안보와 공급망 위기’를 주제로 강연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는 김정은 학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만 참석했으며, 다른 학내 구성원들은 실시간 중계되는 유튜브 라이브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5월에 정효지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의 ‘현대인의 건강한 식사(Evidence-based approach for healthy diet)’, 6월 이찬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의 ‘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의 의료진을 위한 리더십’, 9월 이기원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푸드테크학과장의 ‘Personalization: The Future of FoodTech’, 10월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의 ‘아베시대, 일본의 변화’까지 매회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3

4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임 보직자 워크숍 개최

2022년 4월 30일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에서 2022년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임 보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의과대학 학장단, 보직자, 담당교수, 팀장 등 약 91명이 참석했다. 연초에 계획했다가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져 이번에 개최된 워크숍은 부서별 업무 추진 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강대희 미래발전위원장과 커뮤니케이션전문가 희렌최의 초청 강연이 있어 의과대학의 역사와 구성원 간의 효과적인 소통 방법에 대해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4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X EBS 자이언트 펭TV

EBS 인기 프로그램 ‘자이언트 펭TV’와 서울의대가 기획한 펭수의 서울의대 입학 프로그램이 4월 29일과 5월 6일 2회에 걸쳐 EBS와 유튜브 채널에서 방영되었다. 주인공 펭수가 동물특별전형으로 지원하여 서울의대 다중미니면접-Multiple Mini Interview(MMI)에 합격한 후 해부학 수업을 듣는 모습과 22학번 의예과 1학년 동기들과 학교 생활을 하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의과대학 학생들과 함께 김정은 학장, 김학재 대외협력실장, 이지연 교수가 출연해 열연하였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렵게 느껴지던 서울의대의 이미지를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한 모습으로 선보였다. 앞으로도 서울의대 이미지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5

대학-병원 합동 발전세미나

2022년 7월 1일 2022년도 대학-병원 합동 발전세미나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HIP)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방역 수칙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으며, 현장에는 김정은 학장, 김연수 병원장 등 의과대학 및 병원 보직자, 주임교수 및 진료과장 등 49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합동 발전세미나는 초청 강연, 제6차 주임교수회 및 제3차 전체교수회, 병원 업무 보고, 주제발표 및 패널 토의, 교수협의회 총회, 신입교수 소개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히 초청강연은 제8대 UN사무총장을 지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명예원장인 반기문 원장을 초청하여 ‘국제 보건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청취했다.



6

7

학부모 코너스톤 클럽 초청행사

2022년 6월 10일, 의과대학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2022 학부모 코너스톤 클럽 초청행사’를 진행했다. 코너스톤 클럽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학부모 기부자 클럽으로, ‘부모가 만드는 최고의 교육’이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자녀들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인재로 양성하고 학교 기부 문화의 초석을 함께 만들어 가는 모임이다. 본 행사는 올해 코너스톤 클럽에 신규로 가입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단과 학부모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했다.

김정은 학장은 “훌륭한 자제분들을 키워내시고 이 자리에 오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1899년 의학교로 출발하여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의학·의료 분야와 더불어 사회적 이슈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왔다. 현시대에 요구되는 공감과 소통의 리더십을 가진 학생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든든한 주춧돌을 놓아주시기 바란다”며 환영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7

8

2022학년도 상반기 의과대학 대학원생 우수 논문상 시상식 개최

2022년 8월 25일 2022학년도 상반기 의과대학 대학원생 우수 논문상 시상식이 행정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의과대학 대학원생 우수 논문상은 대학원생의 연구 활동을 격려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학문 풍토를 조성하고자 기획했으며, 이번 시상식을 시작으로 매 학기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학생을 선정해 논문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첫 논문상은 지난 7월, 10일간 접수된 44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학 분야 6편, 임상의학 분야 4편, 최종 10명의 학생을 선정하여 수여했다. 이번 시상식에는 지도교수 및 보직교수, 대학원생, 직원 등 70여 명의 의과대학 구성원이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했으며 최우수상 수상자의 연구논문 발표도 겸하여 논문상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8

건강사회개발원 개소 기념 심포지엄 개최

2022년 8월 31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개발원(원장 조비룡)은 서울대학교병원 CJ Hall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건강사회개발원의 개소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했으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서울대학교병원 보직자 등 50여 명이 현장에 참석했다.

조비룡 건강사회개발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행사는 김정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과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의 축사에 이어 두 명의 전문가 발표와 문진수 통일의학센터장, 김웅한 이종육글로벌의학센터장, 박진호 국민건강지식센터장의 발표,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건강사회개발원은 기존 의과대학의 건강사회정책실이 산하 센터(통일의학센터·이종육글로벌의학센터·국민건강지식센터)의 운영과 한국 의료 발전을 위한 의료정책에 관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 조직의 역할을 계승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앞으로 ‘국민에게 정확하고 신뢰를 주는 의료 정보 전달과 다기관 협력 시스템을 통한 의료정책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종육글로벌의학센터 ‘2022 네팔 심장수술 의료기반 조성 및 교육사업’ 시행

2022년 7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이종육글로벌의학센터(센터장 김웅한)는 네팔 사히드 강갈라 국립 심장센터에서 ‘2022 네팔 심장수술 의료기반 조성 및 교육사업’을 시행하였다. 금번 교육사업에는 김웅한 센터장 외에 흉부외과·소아외과·소아청소년과 의사, 심폐기사, 소아중환자실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12명의 의료진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학생 6명, 이종육글로벌의학센터 연구진 3명, 총 22명의 출장단이 참여했다.

출장단은 사히드 강갈라 국립 심장센터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8건의 임상 강의를 제공했으며, 선천성 심장병 환자 12명을 현지 의료진과 함께 수술하며 핸즈온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현지 요청에 따라 열린 ‘소아 중환자실 환자 영양 관리 방법’에 대한 임상 강의에는 약 60여 명의 현지 간호사들이 참석하며 높은 교육 참여 열의를 보였다.

이종육글로벌의학센터의 ‘네팔 심장수술 의료기반 조성 및 교육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심장수술 술기 교육과 수술 후 환자 관리 교육을 시행하여 네팔 심장수술 의료진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11

의과대학 미래발전위원회, 리더십 특강 개최

2022년 9월 23일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미래발전위원회 주관 리더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했으며, 다수의 의과대학 교수 및 학생이 참석했다. 김기원 비전추진단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행사는 강대회 미래발전위원장의 축하 인사에 이어 Albert Einstein 의과대학 이선규 교수의 발표, Q&A 시간, 감사장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선규 교수는 ‘Pursuing a Medical Career Abroad’를 주제로 해외에서 의료 커리어를 구축해 나갈 때 어떤 점이 중요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본인의 경험담을 통해 들려주었다. 한편, 미래발전위원회는 의과대학의 교육과 연구 등 전 분야에 걸친 비전 제시와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조직되었으며 정기적으로 의학 분야의 리더를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Albert Einstein 의과대학 오무연 교수의 ‘Healthchar Landscape in the Era of Covid-19’ 강의에 이어 10월에는 Weill Cornell 의과대학 Augustine M. K. Choi 학장의 ‘The changing Landscape of Medical Education in the U.S.’ 강의가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11

1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우리아이들 의료재단 간 업무협약 체결식 개최

2022년 10월 17일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우리아이들의료재단 간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금번 업무협약 체결은 양 기관이 글로벌 미래연구를 지원하고, 차세대 의료 및 의학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사됐다. 우리아이들의료재단은 2015년 설립되었으며, 서울시 구로구와 성북구에 우리아이들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아이들병원은 2013년 서울 서남권역,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은 2018년 서울 동북권역에 개원한 어린이병원으로 다각화된 소아전문 협진 시스템을 갖춘 전국에서 유일한 보건복지부 지정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이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비롯하여 국내 유수의 병원들과 협력병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 건강 증진 기여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기관이다. 김정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은 “교육과 연구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재단과 함께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12

의과대학 발전기금 조성 현황

2021.1.1.~2021.12.31.

재단별 기금모금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비지정기금	지정기금	합계
교육연구재단	2,413,083	4,851,408	7,264,491
장학재단	791,714	124,040	915,754
합계	3,204,797	4,975,448	8,180,245

기금별 모금 현황

교육연구재단			
구분	세부 항목	금액(천 원)	비율(%)
● 비지정기금	노벨프로젝트 기금(의과대학 위임기금)	2,248,083	32
	학부모 Cornerstone Club 기금	165,000	2
● 지정기금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도서관 기금	1,775,042	24
	창의적 연구자 기금	3,076,366	42
합계		7,264,491	100

(단위: 백만 원)



장학재단			
구분	세부 항목	금액(천 원)	비율(%)
● 비지정기금	일반장학금	735,434	80
	세인트클로버 장학금(생활비성)	56,280	6
● 지정기금	지정장학금	124,040	14
합계		915,754	100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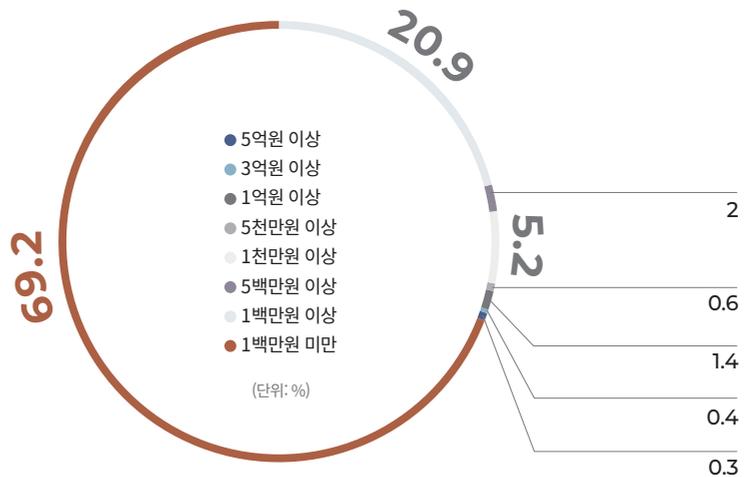


구성원별
기금모금 현황

연도별	교원		동문		학부모		일반		단체/법인		전체	
	명	억원	명	억원	명	억원	명	억원	명	억원	명	억원
2017	440	7	305	6	23	0.8	81	4	40	8	889	26
2018	421	11	319	11	20	0.4	70	5	41	24	871	51
2019	474	11	476	9	139	1	101	8	39	60	1,229	89
2020	415	14	376	5	122	2	94	10	28	27	1,035	58
2021	415	9	379	17	123	2	79	7	37	46	1,033	81
평균	433	10.4	371	9.6	85	1.2	85	6.8	37	33	1,011	61

금액대별
기부 현황

구간	모금액(천 원)	비율(%)	인원(명)	비율(%)
5억원 이상	3,200,000	39.1	3	0.3
3억원 이상	1,350,000	16.5	4	0.4
1억원 이상	1,735,600	21.2	14	1.4
5천만원 이상	321,160	4	6	0.6
1천만원 이상	869,677	10.6	53	5.2
5백만원 이상	122,316	1.5	21	2
1백만원 이상	321,096	3.9	214	20.9
1백만원 미만	260,396	3.2	707	69.2
합계	8,180,245	100	1,022	100



최근 5년간 기부금 모금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교육연구	2,038,331	4,469,809	8,539,469	5,444,346	7,264,491
장학	569,937	563,086	414,538	377,402	915,754
합계	2,608,268	5,032,895	8,954,007	5,821,748	8,180,245

집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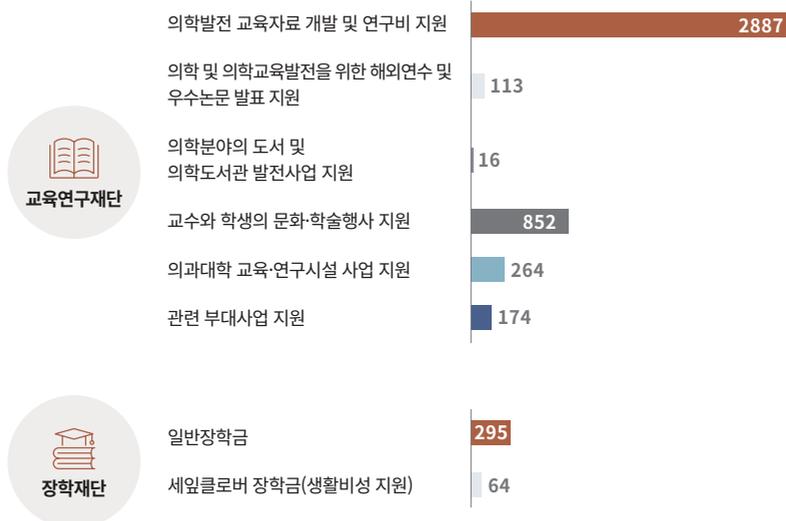
(단위: 천 원)

교육연구재단	
구분	집행액
의학발전 교육자료 개발 및 연구비 지원	2,887,176
의학 및 의학교육발전을 위한 해외연수 및 우수논문 발표 지원	113,985
의학분야의 도서 및 의학도서관 발전사업 지원	16,424
교수와 학생의 문화·학술행사 지원	852,694
의과대학 교육·연구시설 사업 지원	264,977
관련 부대사업 지원	174,814
합계	4,310,070

(단위: 천 원)

장학재단	
구분	집행액
일반장학금	295,092
세잎클로버 장학금(생활비성 지원)	64,244
합계	359,336

(단위: 백만 원)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도서관” 기금 조성 현황

2014. 6. 18.~2021. 12. 31.

발전기금 총당 목표액

260억 원

약정 총액

24,956,153,382원

납입 총액

23,290,033,382원

모금 참여인원

개인 **470**

단체·법인 **65**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노후화된 의학도서관의 재건축을 위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도서관” 건립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첨단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지향적 학습문화 및 학문적 소통과 협업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회원구분		인원(명)	비율(%)	약정액(천 원)	납입액(천 원)
교원	개인	234	45	2,876,856	2,705,456
	단체	8			
동문	개인	111	27	7,868,087	7,826,717
	단체	33			
학부모		44	8	435,300	403,800
일반	개인	81	20	13,775,909	12,354,059
	법인	24			
합계		535	100	24,956,152	23,290,032

☞ 건립 진행 경과

2017년 6월	설계공모 공고
2017년 12월	설계용역 당선작 발표((주)가아건축사사무소 선정)
2018년 1월	의학도서관 설계안 설명회 개최
2018년 3월~2018년 6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2017년 12월~2019년 7월	설계용역 진행
2018년 8월~2019년 8월	실시설계 및 설계완료
2019년 12월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영향 평가
2020년 1월	건축허가 완료(종로구청 건축과)
2020년 6월	공사계약 및 착공
2020년 8월	재건축부지 내 유적 발굴허가(문화재청 제2020-1146호)
2020년 11월	의학도서관, 종합실습동 철거공사 완료
2021년 2월	사업부지 내 문화재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완료
2021년 3월~2021년 7월	토목 흙막이 공사 진행
2021년 8월~2021년 10월	터파기, 흙막이 지보공 시공
2021년 12월	지하 2층 버팀보 설치, 주차장 기초 타설 및 가시시설물 설치
2022년 1월	지하층 매트기초 철근 배근 진행
2022년 3월	지하 1층 주차장 바닥 슬라브 철근 배근 진행
2022년 4월	지하 2층 벽체 및 기둥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및 각종 슬라브 설치 작업
2022년 6월	기계실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완료, 지상 1층 대강의실 슬라브 철근 배근 작업
2022년 7월	보존서고, 대강의실 벽체 철근 배근 및 홀 바닥 슬라브 철근 배근 작업

후원자 명단

2021. 10. 1.~2022. 9. 30.

후원인 여러분들로부터 희망과 응원의 손길이 도착했습니다.

10억원 이상

故 이병목
분당서울대학교병원

3억원 이상

이상록
(재)씨젠의료재단
(재)천만장학회

1억원 이상

김덕상
두산연강재단
산학연종합센터
에이치디엑스(주)
유영성
이승재, 김명숙
이원규
(주)국민은행
(주)마크로젠
(주)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주)우원건설
한국세포주연구재단
허대석
익명 1명

5천만원 이상

김상준
변석수
신찬수
제45회 졸업동기회
(주)동승
주식회사 글록메디칼

1천만원 이상

KR투자증권
SNU청안과
고재준
권태성, 권영범
김경환

김규한
김미금
김옥주
김우선
김유경
노만수
류성희
문혜영
박기호
박도준
박정형

서울의대 동창회
서일성
손환철
신백섭
와이케이컨설팅
위찬우
유인형, 유홍열
유한회사 현산
윤병우
의료법인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이근관
이서희
이승덕
이종구, 강지숙
이종석
이형철
이호진
이환영
장원익
전용성
정규병
정명관
정창욱
제17기 건강리더최고위과정
제18기 건강리더최고위과정
제25회 졸업동기회
제56회 졸업동기회
조병규

조소희
조택구, 김영옥
(재)흥한재단
(주)그린제약
(주)디엔에이링크
차경희
추광철
황순재
황정민
익명 2명

5백만원 이상

구자원
권성근
권택균
김나영
김대우
김동영
김영남
김용철
김정훈
김희중
노연호
박민현
방희재
서길준
서명환
설양조
송재진
신경한
안순현
양신규
원태빈
이재서
정우진
진아춘
진홍율
차원재
최병윤
최진욱

한경석
한두희

1백만원 이상

강건욱
강덕일
강동승
강상호
강성범
강화정
고은성
고재천
고정윤
곽 철
군자출판사
권오상
권운용
김경수
김경호
김광일
김기홍
김남중
김도균
김동욱
김동원
김만호
김범석
김병수
김병혁
김병훈
김상윤, 전소연
김선혁
김선희
김성준
김성준
김세진
김소연
김영걸
김용진
김원근

김원식
김원홍
김유석
김은지
김재수
김재열
김재영
김재욱
김정균
김종학, 박세미자
김준동
김준희
김진현
김진희
김창환
김치현
김항래
김현준
김형호
김호균
김홍빈
김효철
김희찬
나군호
나종필
남명현
남태중
노상헌
도송준
문성근
민혜진
박경석
박경수
박경운
박기성
박기정
박보영
박승민
박영주
박용주

박인규
 박인범
 박인원
 박재현
 박정화
 박종영
 박종철
 박준동
 박찬욱
 박철기
 박현주
 배경은
 배문서
 백성근
 법의학연구소
 부혜정
 서경남
 서대현
 서동범
 서정서
 선우대활
 손재윤
 손철호
 송경준
 송병호
 송재원
 송현범
 신귀전
 신상도
 신종근
 신종환
 신현우
 심원희
 안세현
 안재구
 안제성
 안필수
 양유선
 엄미향
 여창기
 예선혜
 오명돈
 왕종희
 원상희
 위성민
 육의곤
 윤권열
 윤우중
 이광현

이도영
 이민후
 이상춘
 이성희
 이순희
 이승재
 이승훈
 이승희
 이억원
 이웅준
 이유진
 이유화
 이은영
 이은주
 이정섭
 이정애
 이정은
 이종석
 이주호
 이진희
 이진희
 이해승
 이호성
 이호영
 이휘재
 임청희
 장성미
 장영은
 장재원
 장 학
 재단법인 세령
 재단법인봉급장학회
 전소현, 정근범
 정고은
 정규선
 정선근
 정숙향
 정승용
 정익수
 정재희
 정준모
 정지영
 정진옥
 정진행
 정태영
 정희인
 조구영
 조동현
 조성우

조영제
 조유환
 조인기
 조주연
 조한무
 주권욱
 주병환
 주지은
 채종희
 최민호
 최상철
 최승홍
 최의근
 최주혜
 최지원
 최현경
 최형석
 한만조
 한준구
 한창용
 함영림
 허경미
 허승철
 허찬영
 현용선
 홍기정
 홍승노
 황등영
 황영진
 황인하
 황지은
 익명 3명

1백만원 미만
 강경훈
 강대희
 강도윤
 강민구
 강병철
 강병철
 강승백
 강종열
 강진화
 강형진
 강희경
 고영박
 고은미
 고재성
 고정민

공성호
 광상인
 광호신
 광홍석
 구경희
 구승엽
 구자록
 구자성
 구진모
 권보상
 권성택
 권오기
 권오인
 권인호
 권장덕
 권정희
 권준수
 권춘련
 권형민
 김갑수
 김강민
 김경준
 김규보
 김기연
 김기정
 김기중
 김대현
 김동성
 김동완
 김동준
 김마로
 김명수
 김명환
 김민수
 김민욱
 김민주
 김범준
 김범철
 김병관
 김병준
 김병천
 김병철
 김봉식
 김봉직
 김봉년
 김상완
 김상윤
 김상은
 김상현

김서정
 김선민
 김성덕
 김성도
 김성오
 김성완
 김성재
 김성현
 김수웅
 김순복
 김승기
 김승재
 김승태
 김연수
 김영석
 김영수
 김영태
 김영태
 김영훈
 김용범
 김용식
 김용휘
 김우오
 김용한
 김 윤
 김윤준
 김이경
 김인구
 김인아
 김인준
 김재성
 김재용
 김재형
 김정선
 김정수
 김정아
 김정윤
 김정은
 김정홍
 김정희
 김종민
 김종억
 김종현
 김종효
 김주찬
 김주한
 김주현
 김주현
 김준석

김준성
김지선
김지수
김지애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원
김지현
김진경
김진욱
김진욱
김진원
김진희
김철민
김충효
김태완
김태우
김태유
김태준
김택수
김하영
김학령
김학재
김한석
김한수
김한준
김현경
김현준
김현진
김현희
김형진
김혜리
김혜선
김혜선
김혜영
김홍규
김희선
김희수
김희은
나기영
나영곤
나정임
남승표
노영
도광찬
도래미
도상환
도영경

두기현
류준선
류지곤
류형호
류호걸
문경용
문민경
문승환
문우경
문제호
문형근
민병훈
민성원
민승기
민양기
박경석
박광석
박교훈
박규주
박금용
박금자
박노현
박무균
박상민
박상원
박상준
박서영
박석원
박석진
박선원
박성배
박성섭
박성준
박성혜
박성호
박성환
박소연
박송연
박수경
박수환
박윤근
박재규
박재현
박재형
박정규
박종완
박종신
박종원
박지영

박지은
박진우
박진주
박진호
박현선
박현아
박혜은
박홍용
박홍배
배기훈
배은정
배인규
백경돈
백남종
백릉민
백선하
백수민
백유진
범재원
변민수
변성욱
서경석
서동훈
서민
서인석
서종도
석승혁
성낙진
성미라
성승용
성연선
성용기
성정준
성창규
손동현
손영제
손영진
손유동
손정민
손진홍
손현진
송경호
송상훈
송용상
송은영
송인성
송정윤
송정한
송지연

송지현
송진영
신건성
신민섭
신성수
신애선
신은희
신장현
신정원
신좌섭
신지은
신창호
신충호
신희강
심혜영
안병설
안신영
안용민
안용태
안효섭
안희태
양대석
양성미
양영미
양한광
양희진
엄태민
엄태수
엄꽃보라
엄진섭
예상규
오국현
오국환
오백록
오상우
오세일
오수강
오승근
오승준
오승하
오윤규
오은정
오주한
오창완
오현화
온영근
왕가은소래
우경제
우성민

우승일
유경상
유선미
유세화
유승범
유원정
유재학
유정준
유정희
유주연
유철규
유형근
윤강섭
윤상웅
윤상일
윤상훈
윤성수
윤영호
윤용수
윤종현
윤춘식
윤한두
윤현경
윤현선
윤형진
이가영
이가희
이갑노
이건주
이경구
이경민
이경분
이경원
이경호
이관우
이광웅
이국래
이근석
이근욱
이기동
이기정
이기혁
이남준
이대근
이동섭
이동수
이동순
이동윤
이동호

이 란	이춘택	전찬후	조성윤	최현림
이마리아	이태섭	전형준	조성익	최현호
이명철	이태승	전혜원	조세현	하정호
이미지	이평복	전혜찬	조소연	하종원
이상협	이하니	정경천	조수창	하태현
이상형	이하정	정다운	조영미	한경희
이석호	이학중	정두현	조원상	한규은
이성호	이혁준	정명희	조인철	한동협
이수주	이현승	정상준	조재훈	한문구
이순형	이현정	정성원	조정연	한민제
이승미	이 활	정승민	조정현	한서경
이승연	임경환	정승용	조주희	한성희
이승준	임규학	정영섭	조철민	한수연
이승준	임석아	정영희	조태준, 동은실	한원식
이승환	임선민	정우영	주동현	한의석
이시욱	임순애	정윤선	주미란	한인웅
이영호	임영진	정의석	주연호	한정호
이용진	임우성	정의석	(주)퍼슨	한지원
이원우	임정구	정재용	지병철	한혁수
이원우	임정윤	정재준	채지원	한호성
이유경	임창우	정종우	천재영	합창단후배사랑장학금
이유미	임채영	정종철	천정은	허보윤
이일근	임 청	정 주	최가진	허 선
이일수	임춘수	정준호	최경숙	허윤무
이재영	임 표	정진구	최기영	허은영
이재영	임혁재	정진욱	최동현	허창훈
이재일	장기택	정진호	최미라	호원경
이재협	장기현	정진희	최병인	홍근식
이재호	장용훈	정천기	최상일	홍성규
이재환	장 원	정철우	최세훈	홍성환
이정민	장원일	정 현	최수희	홍순우
이정상	장윤석	정현정	최영빈	홍윤철
이정은	장준우	정현태	최영인	홍윤호
이정찬	장진영	정현훈	최영호	홍정연
이정표	장학철	정형화	최영호	홍택유
이종구	장한나	정혜원	최윤석	황상미
이종석	장호준	정희순	최은영	황성혜
이종주	전강일	정희연	최은화	황영일
이준교	전범석	제한준	최의성	황응수
이준영	전병준	조규선	최인재	황의진
이지수	전상훈	조나리아	최재홍	황인평
이지영	전성수	조남혁	최정순	황정원
이지혜	전수경	조맹기	최정준	익명 12명
이지호	전양숙	조민준	최종배	
이직수	전영태	조보연	최주성	
이진석	전윤경	조비룡	최지엽	
이찬희	전인표	조상헌	최지은	
이창한	전종관	조선욱	최진상	
이철민	전주홍	조성엽	최창원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우 프로그램

예우내용		기부금액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3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명예헌정 및 예우	출연자 성함 영구 기록	○	○	○	○	○
	명예의 전당 등재				○	○	○	○
	기금 명칭 부여				○	○	○	○
	부조제작				○	○	○	○
기념품 및 간행물	기념품, 생일카드		○	○	○	○	○	○
	감사패 증정	감사장	감사장	○	○	○	○	○
	의과대학 간행물 발송	○	○	○	○	○	○	○
행사 초청	특별행사(건강강좌 등)		○	○	○	○	○	○
	기부금 전달식				○	○	○	○
	제막식				○	○	○	○
의학도서관 ※ 이용 신청 필요	출입 및 도서대출	1년	5년	5년	5년	5년	5년	5년
	논문 제공 서비스	(100만원 이상)						
예우카드 발급 (무료주차)	연건캠퍼스	본인 외 1명 (직계가족)		10년	평생	평생	평생	평생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예우 서비스	진료비 감면	본인 및 배우자		3년	10년	평생	평생	평생
	비급여 중 선택항목 50% (연간 300만원 한도/ 회원 및 가족합산)	부모 및 자녀			5년	10년	평생	평생
	종합건강검진권 (1회 100만원 한도/ 유효기한 내 사용)	본인 및 배우자			1년	3년	5년	평생

- ※ 법인 또는 단체(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및 배우자(또는 대표자 및 공동대표자)에 한해 예우
- ※ 후원회원가족 : 배우자 및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에 한해 예우
- ※ 예우카드(무료주차) 교부 : 만 18세 이상 후원회원에 한해 발급(단, 서울의대 재학생 발급 불가)
- ※ 병원 예우는 [서울대병원 예우 규정]을 적용받음
- ※ 의학도서관 출입은 모바일 App(‘서울대 ID 카드’) 사용
- ※ ‘논문 제공 서비스’는 이용 신청 후 의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http://medlib.snu.ac.kr>)
- ※ 상기 예우 프로그램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도서관” 기금 예우 프로그램

기부액	네이밍 예우	기부액	네이밍 예우
100억원	건물 네이밍	3천만원	낮은서가
50억원	대강의실	2천만원	6인열람테이블
30억원	아치형 열람실·지식영센터	1천만원	4인열람테이블·1인캐럴식·벤치·쇼파·테이블
10억원	학습실·자료실·옥상정원·CBET실	5백만원	4인휴게테이블·단방향2인석·칸막이1인석
3억원	이용자교육실·미디어제작실·UBT·교육동휴게실	3백만원	다목적홀 의자
1억원	그롭스터디룸·휴게실·연구컨설팅룸·GSR	2백만원	열람실 의자
5천만원	벽체서가	1백만원	기부자홀 명패

※ 상기 예우 프로그램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발전기금 참여 약정서

인적사항(필수사항)

발전기금 약정과 동시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발전후원회 회원이 됩니다.

[개인] 성명	<input type="checkbox"/> 익명 희망	[법인/단체] 명	<input type="checkbox"/> 익명 희망
생년월일	년 월 일 (양/음)	연락처	
주민(사업자)등록번호	E-mail		
주소(우편물수령지)			
본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동문(졸업년도:) <input type="checkbox"/> 재학생(학년:)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input type="checkbox"/> 교직원(소속:) <input type="checkbox"/> 일반			

약정정보(해당하는 항목에 표시 및 내용 기재)

	<input type="checkbox"/> 노벨프로젝트 기금(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위임기금)
희망사용처	<input type="checkbox"/> 모금 프로그램 지정 [] <input type="checkbox"/> 교실 및 연구소 지정 []
	<input type="checkbox"/> 장학 <input type="checkbox"/> 기타 []
기부금 운용방법	<input type="checkbox"/> 원금보존(원금의 이자로 지원) <input type="checkbox"/> 원금사용
약정금액	일금 원 (₩)
기부방법	<input type="checkbox"/> 일시납 <input type="checkbox"/> 분할납 ()회 (년 월 일 -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월정액 기부: 매월()원씩
기부예정일	년 월 일

납부방법

	<input type="checkbox"/> 무통장 입금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CMS)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교육 연구	신한 100-017-388097 [예금주: (재)서울대의과대학교육연구]	은행명: 계좌번호:	카드명: 카드번호:
장학	신한 100-014-645985 [예금주: 서울대의과대학장학재단]	예금주: ※ 25일 또는 말일 출금 예정	유효기간: 년 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수집-이용목적	약정처리,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부자 관리 및 예우
수집항목	(1) 필수항목: 성명(단체 및 상호명), 연락처(자택·직장·휴대폰번호), 주소, 약정정보, 기부방법, 희망사용처 (2) 선택항목: 본교관계, 생년월일, 이메일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예우 목적)
정보제공	신용카드 결제 정보(카드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CMS 자동이체 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기부금 납부 및 예우·모금통계를 위한 제3자 정보제공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본인 요청 시 삭제. 단,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와 기부금 결제 정보 및 자동이체 정보를 보관

※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근거: [필수정보, 선택정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 소득세법 제160조의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208조의 3,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58조, 법인세법 제112조의 2 등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준수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수증 및 예우품 발송 등 기부자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발전후원회 가입과 함께 기부금 모금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약정인: (서명)



SNU
MEDICINE

TEL. 02-740-8182 FAX. 02-740-8190 E-mail. snucmf@snu.ac.kr



SNU MEDICINE

VISION ROAD

2022 Vol.11

발행인 김정은

발행일 2022년 12월 5일(통권 11호)

기획·디자인 큐라인

인쇄 (주)태광피앤디

발행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주소 03080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3

연락처 Tel. 02-740-8114 Fax. 02-740-8190

홈페이지 <http://medicine.snu.ac.kr>



SNU
MEDICINE